

평가보고서 2014-7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차관사업 평가

2014. 10

한국수출입은행 경협평가팀  
(용역수행 : (사) 한국기업경영학회 )

본 평가보고서는 외부평가로 위탁되어 평가책임자인 김영준 교수 (한국기업경영학회)를 포함한 연구진들의 참여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본 평가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 및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 <보고서 요약>

I. 서론 .....	1
1. 평가 배경 및 목적 .....	1
2. 평가 기준 및 범위 .....	2
3. 평가 절차 및 방법 .....	3
II.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현황 및 성과 .....	7
1.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현황 .....	7
2.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성과 .....	16
3.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의의 및 한계 .....	21
III. 중소기업 참여유형별 특성 및 현황 .....	23
1. 사업타당성 조사(F/S) 사업 .....	29
2. 본 구매 컨설턴트 사업 .....	34
3. 본 구매 사업 .....	42
4. 참여유형별 사업 현황 비교 .....	51
IV. 중소기업 지원 제도 평가 .....	57
1. 중소기업 지원 제도 개요 .....	57
2. 중소기업 지원 제도 분석 .....	61
3. 중소기업 지원 제도 참여자 평가 .....	63
4. MDB 및 선진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시사점 .....	77
V. 시사점 및 제언사항 .....	82

1. 시사점 .....	82
2. 제언사항 .....	86

**<별 첨> ..... 93**

1. 국내조사 설문지 .....	93
2. 현지(해외) 조사 설문지 .....	116
3. 중소기업 유망 수출 품목 .....	127

## [ 표 목차 ]

- < 표 1 > 평가 일정
- < 표 2 > 수출금액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 < 표 3 > 중소기업 인력수급 현황(한국무역협회, 2013)
- < 표 4 > EDCF 참여유형 개요
- < 표 5 > EDCF 참여유형별 중소기업 현황
- < 표 6 > F/S 사업 지원 절차
- < 표 7 > F/S 사업 참여 분야
- < 표 8 > F/S 사업 참여 지역
- < 표 9 > 컨설턴트 고용 절차
- < 표 10 > 컨설턴트 사업 참여 분야
- < 표 11 > 컨설턴트 사업 참여 지역
- < 표 12 > 본 구매 절차
- < 표 13 > 본 구매 참여 분야
- < 표 14 > 본 구매 참여 지역
- < 표 15 > EDCF 소액 차관사업 리스트
- < 표 16 > 일본의 무상원조 조달시장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제품사례

## [ 그림 목차 ]

- < 그림 1 > 평가 추진체계
- < 그림 2 > 평가 절차 및 방법
- < 그림 3 > 국내/현지조사 설문 대상
- < 그림 4 > 연도별 사업 참여 현황
- < 그림 5 > 연도별 중소기업 참여 비중
- < 그림 6 > 분야별 현황 (건수, 금액)
- < 그림 7 > 지역별 현황 (건수, 금액)
- < 그림 8 > 참여 중소기업의 주력 해외시장
- < 그림 9 >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지역별 비중(2012년/중소기업청)
- < 그림 10 > 규모별 현황
- < 그림 11 > 컨소시엄별 현황
- < 그림 12 > 참여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
- < 그림 13 > 참여 중소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 < 그림 14 > 추가적인 해외진출 활동
- < 그림 15 > EDCF 지원절차
- < 그림 16 > F/S 사업 분야별 참여 현황
- < 그림 17 > F/S 사업 지역별 참여 현황
- < 그림 18 > F/S 사업 컨소시엄 현황
- < 그림 19 > 컨설턴트 사업의 분야별 참여 현황
- < 그림 20 > 컨설턴트 사업 지역별 참여 현황
- < 그림 21 > 컨설턴트 사업 컨소시엄 현황
- < 그림 22 > 본 구매 사업의 분야별 참여 현황
- < 그림 23 > 본 구매 사업의 지역별 참여 현황
- < 그림 24 > 본 구매 컨소시엄 현황
- < 그림 25 > 연도별, 참여유형별 현황
- < 그림 26 > 분야별, 참여유형별 현황
- < 그림 27 > 지역별, 참여유형별 현황
- < 그림 28 > 참여유형별 컨소시엄 비중 현황
- < 그림 29 > 수출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 < 그림 30 > EDCF 중소기업 지원 제도 분석
- < 그림 31 > 중소기업 역량 강화 제도 평가
- < 그림 32 > '14년 상반기 실무교육 설문결과
- < 그림 33 > F/S 제도개선에 대한 평가
- < 그림 34 >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변화
- < 그림 35 > F/S 사업 프로세스 만족도

- < 그림 36 > 본 구매 제도 평가
- < 그림 37 > 본 구매 사업 프로세스 만족도
- < 그림 38 > 수원국 환경 개선 제도 평가
- < 그림 39 >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안

## [ 참고 문헌 ]

- [1] EDCF 안내책자([www.edcfkorea.go.kr](http://www.edcfkorea.go.kr) 홈페이지)
- [2] 대한민국 ODA 브로셔(국무조정실, 2014)
- [3] EDCF 연차보고서(기획재정부, 2012, 2013)
- [4] EDCF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한국수출입은행, 2011~2013)
- [5] 중소기업 소액차관 사업 완공평가보고서(라오스 3건)(한국수출입은행)
- [6] 중소 중견기업 EDCF/국제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교육자료 ('13.11월)
- [7] 중소기업의 ODA 사업참여 설명회(한국협력재단, '13.12월)
- [8]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산업연구원, 2014)
- [9]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정책 효율화방안 보고서(한남대산학협력단,2012)
- [10] ODA로 지원하는 일본의 중소기업 제품 수출 확대 전략(한일재단일본 지식 정보센터, 2013)
- [11] 독일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12월)
- [12] 최근 중소기업 수출동향과 수출확대 방안(한국무역협회, 2013.2월)
- [13] e-나라지표([www.index.go.kr](http://www.index.go.kr) 홈페이지)
- [14] 공공부문에서 BSC 활용실태분석과 개선방안(한국행정연구원, 2007)
- [15] BSC 모형을 활용한 교육사업의 성과평과 연구(심학경, 2010)



- [16] Balanced scorecard step by step for Government and Nonprofit Agencies.(Niven, 2003) 한글판
- [17] 중소기업지원평가사업 성과평가모형 연구(조이현, 2005)
- [18] 중소기업진흥공단사업 성과분석 지표개발(중소기업진흥공단, 2010)
- [19] 혁신정책 평가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행동부가성 관점에서 (손수정, 2008)
- [20] 2014년 해외 수출유망 품목 및 국가 현황(KOTRA, 2014.2월)
- [21] MDB 투자 및 개발차관 활용을 위한 연구(국토교통부, 2010년)
- [22] ADB(아시아개발은행) ANNUAL REPORT 2012

## <보고서 요약>

### 1. 서론

#### (평가 배경 및 목적)

- 최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 심화 추세 속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 1987년 출범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도국의 인프라 확충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EDCF를 통해 개도국에 적극 진출 중인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참여는 현재('14. 9월)까지 참여 건수 기준 23.1%, 금액 기준 13.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EDCF에서 현재 시행 중이거나 예정 중인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시사점과 제언 사항을 도출하였다.

#### (평가 절차 및 방법)

- EDCF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EDCF 참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참여 중소기업 직원 및 EDCF 담당자, 수원국(라오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EDCF 사업 참여의 성과를 파악하고 EDCF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 참여가 부진한 부문에 대한 원인 분석과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EDCF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2.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현황 및 성과

###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현황)

- 연도별 EDCF 사업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건수 (165건)는 매년 증가하여 '14년 9월 현재 대기업(226건) 대비 73% 수준이지만, 중소기업이 참여한 사업 금액은 대기업의 21.6% 수준으로 비중이 낮다.
-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 에너지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보다 보건 (2,597억원), 교육(1,425억원), 공공행정(1,238억원) 등 소액, 기자재 차관 사업이 많은 분야에서 중소기업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지역별로는 아시아, 아프리카에 중소기업 사업 참여 비중이 높고 규모별로는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하다.

###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성과)

- EDCF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EDCF 사업 참여를 통해 재무적, 비재무적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재무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살펴보았을 때 추가적인 사업수주 성과는 일부 기업에 편중되어 있지만, 향후 사업 참여의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불확실한 해외 진출 환경 속에서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EDCF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또한 조직 및 지식자산의 성장 및 추가적인 해외진출 활동에 대한 설문결과가 긍정적임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은 EDCF 사업 참여를 통해 내부인력의 전문성 향상, 운영시스템 및 기업문화 등 비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 3. 중소기업 참여유형별 특성 및 현황

-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EDCF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F/S") 사업, 본 구매 컨설턴트 사업, 건설 및 기자재 공급 등 본 구매 사업으로 나누어지며, 건수 기준으로 본 구매 컨설턴트(전체 사업 중 45.4%), F/S 사업(36.3%), 본 구매 사업(21.8%) 순(順)으로 중소기업이 참여 중이다.
- F/S는 EDCF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규모 및 예산 등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로, 사업 금액은 작지만 본 구매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과업 특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하다.
- EDCF 예산 중 차관사업 컨설팅비는 사업준비, 사업실시, 사후관리 단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컨설팅 예산으로 사업준비 단계에 해당되는 F/S 사업은 '13년 기준으로 차관사업 컨설팅비의 약 74% (집행금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 상세설계, 입찰서류 작성, 사업관리 및 감리 등의 과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 사업은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에 적합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참여유형중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다.
- 중소기업 참여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전체 194건 중 88건으로 약 45%을 차지하며, 금액 기준으로 약 1,250억원으로 전체 3,223억원 중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 본 구매 사업은 인프라 구축 및 이에 필요한 설비나 기자재 공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사업으로 교통, 에너지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많아 참여 건수나 금액 측면에서 F/S 사업, 컨설턴트 사업에 비하여 중소기업 참여 비중이 낮다.
- 중소기업 참여 비중은 전체 353건 중 77건으로 22%이며, 중소기업의 참여 금액은 6,908억원으로 전체사업 금액 5조 6,372억원 중 12%를 차지하고 있다.

#### 4. 중소기업 지원제도 평가

##### (중소기업 지원제도 참여자 평가)

- EDCF는 중소기업이 EDCF 사업 경험을 발판으로 국제기구, 신흥국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 국제조달시장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EDCF 참여유형별 중소기업 지원 제도 개선, 수원국 사업 환경 개선 등 3대 분야에서 '14년 9월 기준으로 12개 방안은 시행 중에 있으며, 1개 방안은 추진 예정에 있다.
-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제도
  -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EDCF 실무교육'과 '중소기업 홈페이지', 시행 예정 중인 '프로젝트 컨설턴트 지원' 제도는 모두 효과성이 높게 평가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에도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 EDCF 참여유형별 중소기업 지원 제도

### [ F/S 사업 ]

- 중소기업의 F/S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중소기업 가점제도', '제안서 작성부담 경감'은 설문조사 결과 실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다만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F/S 사업 수행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를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EDCF에서 시행 중인 Project Concept Paper(PCP) 정보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 [ 컨설턴트 사업 ]

- 컨설턴트 사업은 중소기업의 참여가 충분히 활발한 상황으로 컨설턴트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별도의 제도 개선방안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 [ 본 구매 사업 ]

- 본 구매 사업은 교통, 에너지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많아 참여 건수나 사업규모 측면에서 F/S 사업, 컨설턴트 사업에 비하여 중소기업 참여 비중이 낮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가 많은 편이다.
- 중소기업의 본 구매 사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중인 '소액차관 범위 확대', '분리구매 확대' 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수원국 사업 환경 개선

- 수원국 발주 예정사업을 연초에 공시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효과성과 인지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금리 우대 제도는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유망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 구축을 통해 보건, 교육 외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발굴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MDB 및 선진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시사점)

- MDB의 경우 다수의 재원공여국과 개발도상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기구의 특성으로 특정 재원 공여국의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MDB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수원국 경제 개발에 필요한 양자 간 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 수주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EDCF의 지원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 해외 주요국 모두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ODA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 수출 확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무상원조를 활용한 지원전략으로써 유상원조 기금인 EDCF가 참고하여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해당 사례를 참고하여 무상원조와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5. 시사점 및 제언사항

### [중소기업 참여확대 유도]

- 사업실시, 사후관리 컨설턴트 고용 시 중소기업 가점제도 실시
  - 사업준비 단계에서 F/S 수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 실시, 사후관리 단계에서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소기업의 ODA 사업 참여수요 파악을 통한 후보사업의 발굴
  - 실무교육, 홈페이지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ODA 사업 진출 수요를 파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ODA 사업에 적합한 유망 분야나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 이후 수원국과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아국 중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분야에 대해 각 수원국별 니즈(Needs)를 파악하고 후보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 무상원조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
  - KOICA의 무상원조 사업에는 기자재 공급 사업 등 중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소액의 사업이 많으므로, 기 추진한 무상 원조사업 중 수원국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유상원조로 지원을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 후속 사업을 EDCF가 추진하는 연계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중소기업 지원제도 홍보 강화]

### □ 소액차관 우수지원 사례 발굴을 통한 홍보 강화

- 소액차관 사업을 통해 해외진출에 성공한 중소기업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EDCF 실무교육 등을 통해 이를 소개하여 참여 후보자인 중소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이와 더불어 정책 협의회 시에도 소액차관의 장점과 우수 지원 사례를 수원국 담당자에게 소개하여 소액차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신설 제도인 섹터개발차관제도 홍보 강화

- 최근 도입된 '섹터개발차관사업' 또한 향후 중소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크므로 개도국의 오너십을 존중하는 섹터개발차관사업의 의의를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수원국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해 EDCF는 수원국이 지원 후보사업 선정 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분야의 소액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섹터개발차관 제도의 세부적인 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EDCF 설명회 등을 통해 해당 제도를 소개하여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 EDCF의 중소기업 도움마당 홈페이지 개편

-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진출 정보 제공을 위해 개설한 'EDCF 중소기업 도움마당 홈페이지'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EDCF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사업 및 입찰정보, FAQ, 성공 사례 등 EDCF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 □ 중소기업 대상 실무교육 내용 강화 및 콘텐츠 공개

- 최근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자개발은행(MDB) 교육, 타 기관 연계 교육을 추진한 것처럼,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산업 부문별 해외시장 진출 전략, EDCF 사업 단계별 심화 교육 등 실무교육의 내용을 보강하고 참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자료 등 실무 콘텐츠를 공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EDCF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 □ 중소기업 앞 EDCF 사업기초정보(PCP) 제공

- 중소기업의 경우 EDCF의 F/S 사업이나 컨설턴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지 정보 부족 및 수원국과의 네트워크 미비로 사업 초기 단계에 수원국 정부가 원하는 정확한 사업추진 방향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 EDCF는 지원 후보사업의 개념이 불명확하거나, 쟁점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확정하는 Project Concept Paper (PCP) Mission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초기단계의 사업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이렇게 확보된 사업기초정보(PCP)를 입찰 설명회 등을 통해 F/S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직접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중소기업이 PCP를 활용하여 F/S, 컨설턴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PCP의 유용성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사업 수행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수원국 협력 네트워크 강화]

### □ EDCF 현지 사무소 확대

- 수원국 현지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EDCF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 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EDCF는 수원국 현지 사무소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13년 9월에 시행한 ODA 협의채널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축한 재외공관 및 국내 ODA 기관과의 협의채널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 해외 협력채널 구축

- EDCF 현지사무소가 없는 개도국의 경우 KOTRA, KOICA 현지사무소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중소기업에게 사업 수행시 필요한 현지정보 제공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I. 서론

## 1. 평가 배경 및 목적

- 중소기업은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업체수의 99.9%(335만개), 종사자수의 87.7%(1,306만명)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매우 높다(e-나라지표, 2014). 정부도 중소기업을 창조 경제 실현의 핵심 주체로 인식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중소기업은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인공’으로서,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기술 및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경제 발전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불확실한 경영환경과 치열한 경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말 글로벌 금융 위기의 파고를 넘어 2012년 1,026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총 수출의 18.8%에 해당한다.
  
    - 그러나, 2009~2012년 기간 중소기업 수출은 연평균 10.1%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대기업은 연평균 16.8% 증가하여 대기업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다.
  
    - 또한,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2010년 전년대비 28.4%를 나타냈으나, 2011년에는 3.0%, 2012년에는 1.1%에 그치는 등 수출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산업연구원, 2014).
- 
- 특히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 심화 추세 속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1987년 출범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도국의 인프라 확충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대기업의 비중은 EDCF 본 사업에서도 중소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DCF 본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EDCF를 통해 개도국에 적극 진출 중인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참여는 '87~'14년 9월 사이에 건수 기준 23.1%(참여건수), 금액 기준 13.6%(컨소시엄 지분금액)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EDCF를 통해 개도국에 적극 진출 중인 대기업에 비해 저조하였다.
-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의 발판이 되고 있는 EDCF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해외사업 역량을 강화하여 '한국경제 - 중소기업 - 개도국' 3자가 모두 Win-Win-Win 할 수 있도록 현재 EDCF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EDCF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현황을 분석하고 EDCF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를 종합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시사점과 제언사항을 도출하였다.

## 2. 평가 기준 및 범위

- II장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현황 및 성과'에서는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분석하기에 앞서 중소기업이 참여한 EDCF의 사업현황을 연도별, 분야별, 지역별, 규모별, 컨소시엄별로 분석하고 EDCF 사업에 참가한 중소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의 의의 및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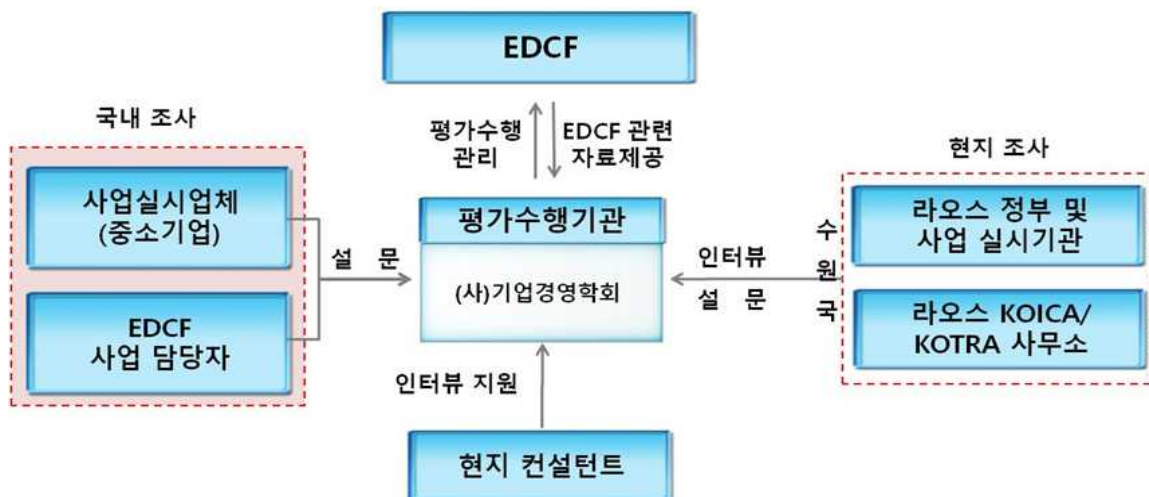
- III장 ‘중소기업 참여유형별 특성 및 현황’에서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EDCF 사업 유형인 사업타당성조사(“F/S”), 컨설턴트, 본 구매 사업 각각의 특성 및 절차를 살펴보고, 연도별, 분야별, 지역별, 컨소시엄별로 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 IV장 ‘중소기업 지원 제도 평가’에서는 EDCF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 EDCF 사업 담당자, 수원국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 V장 ‘시사점 및 제언사항’에서는 앞 장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EDCF 담당자의 검토 및 인터뷰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제언사항을 도출하였다.

### 3. 평가 절차 및 방법

#### □ 평가단 구성

- 책임자 김영준 교수(고려대) 외 이제홍 교수(조선대), 박상안 교수(중앙대), 강봉주 연구원

<그림 1> 평가 추진체계



□ 평가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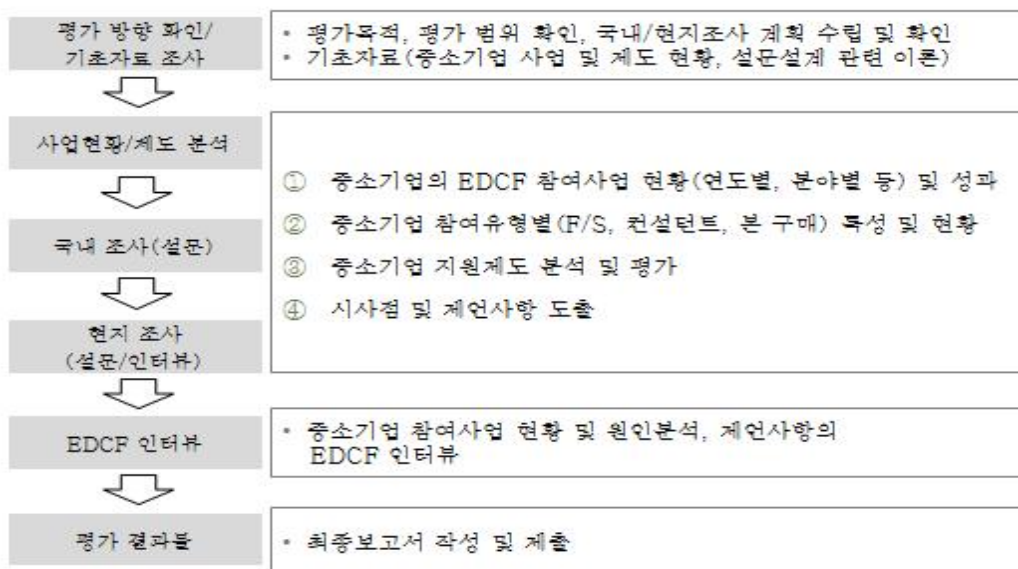
<표 1> 평가 일정

일정	추진 내용	제출 보고서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수행 계획 수립</li> <li>● 자료 수집 및 국내조사 설문지 설계</li> </ul>	용역수행 계획서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CF 국내조사 실시</li> <li>● EDCF 사업 및 제도 현황 파악</li> </ul>	국내조사 설문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현지조사 계획 수립/조사 (설문지 설계 및 현지 출장)</li> <li>● EDCF 사업 및 제도 현황 분석</li> <li>● 국내조사 결과 분석</li> </ul>	현지조사 계획서 (설문포함)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현지조사 보고서</li> <li>● 중간보고서 작성 및 발표</li> </ul>	중간보고서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CF 사업/제도 담당자 인터뷰</li> <li>● 최종보고서 작성 및 발표</li> </ul>	최종보고서

□ 평가 절차 및 방법

- 중소기업 지원 차관사업의 효과적인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 평가 절차 및 방법





- 우선 기초조사를 통해 평가의 목적, 범위 등 방향성을 확인하고, 평가를 위한 국내 및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자료와 EDCF 및 타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설문 설계 관련 이론(BSC: Balanced Scorecard) 등 기초 자료를 수집, 조사하였다.
- 이후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중소기업 참여사업 유형별(F/S, 컨설턴트, 본 구매) 특성 및 현황을 파악한 뒤,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직원, EDCF 사업 담당자, 수원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및 현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한 설문 설계 시, 사업의 정량적 성과측정과 더불어 학습과 성장, 프로세스, 고객 등 정성적 성과 측면을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BSC(Balanced Scorecard) 이론을 활용하였으며, 재무, 고객, 학습과 성장, 프로세스 측면의 4가지 관점에서 각 설문대상별로 주요 평가요소를 반영하였다.(별첨 1, 2 참고)

< 그림 3 > 국내/현지조사 설문 대상

공공 BSC Model	주요 평가 요소	핵심 주체 및 평가대상		
		수원국	EDCF 사업담당	중소기업
Process	사업별 Process 및 사업 참여환경 개선 제도 평가, 만족도, 타기관 협력	◐	●	◐
고객	유망사업 분야, 사업성과 확대, 우수사례	●		
학습과 성장	지식/조직 자산 성장, 추가 활동(행동부가성)유도, 중소기업 역량강화 제도 평가		◐	●
재무	사업목적, 단기 재무성과, 중장기 수출 성과			●
		설문 1	설문 2	설문 3

- 설문 대상으로는, 완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 중 설문이 가능한 19개의 중소기업 직원과 11명의 EDCF 사업 담당자를 선정하여 '14년 7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원국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이 참여한 소액차관 사업(비엔티안, 5개 공항 소방설비 및 109 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을 진행한 라오스를 선정하여 '14년 8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상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참여가 부진한 부문에 대한 원인 분석과 현실성 있는 제언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EDCF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상기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을 위한 제언사항을 도출하였다.

## II.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현황 및 성과

### 1.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현황

#### (1)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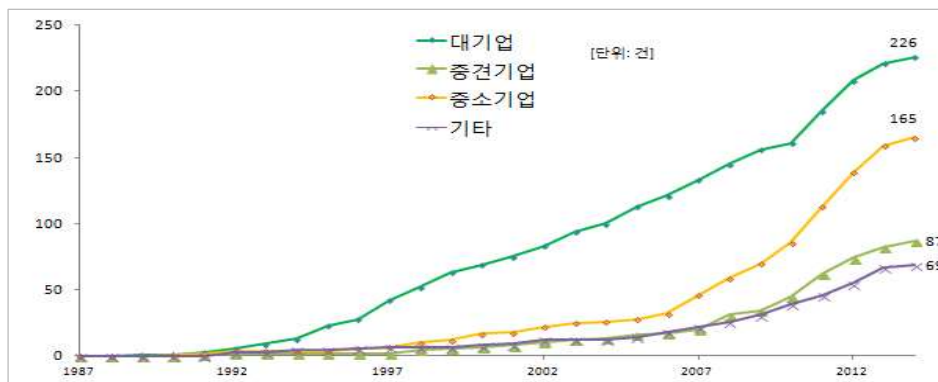
- 연도별 EDCF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건수(165건)는 매년 증가하여 '14년 9월 현재 대기업(226건) 대비 73% 수준이지만, 중소기업이 참여한 사업 금액(권소시업 지분금액 기준)은 대기업의 21.6% 수준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컨설턴트 사업 및 본 구매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 이전에 실시되는 사업 타당성조사(F/S) 사업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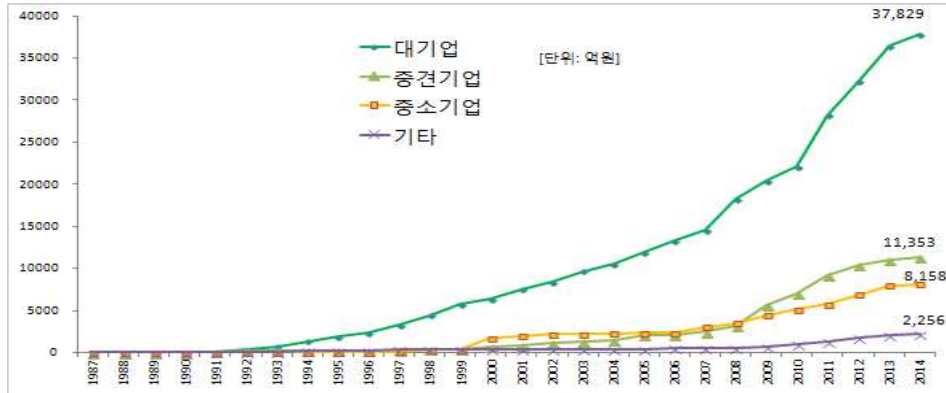
- 본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참여 건수 기준으로 전체 547건 중 165건으로 약 30.2%, 금액 기준(권소시업 지분금액)으로 총 5조 9,595억원 중 8,158억원으로 약 13.7%를 차지하고 있다.
- 참여 건수 기준으로 초기('95~'99년)에 중소기업의 참여는 13% 수준이었으나, 최근 5년('10~'14년)에는 37%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 그림 4 > 연도별 사업 참여 현황

(누적 건수)



(누적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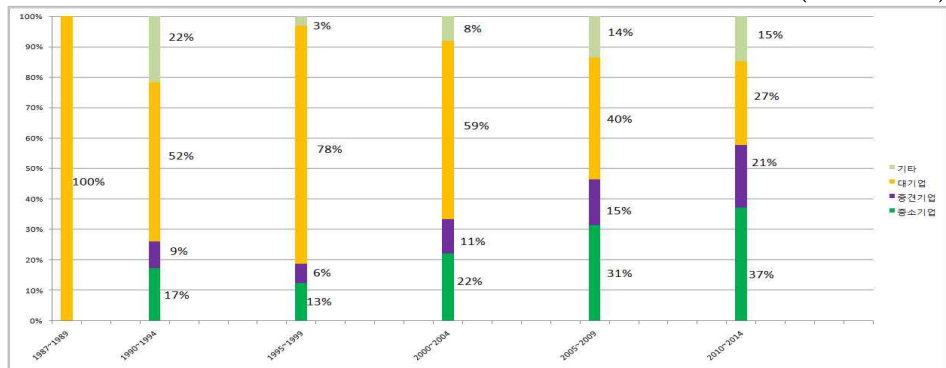


\* 계약연도 기준('87~'14.9월), 컨설턴트 사업 및 본 구매 사업 대상, 금액은 컨소시엄 지분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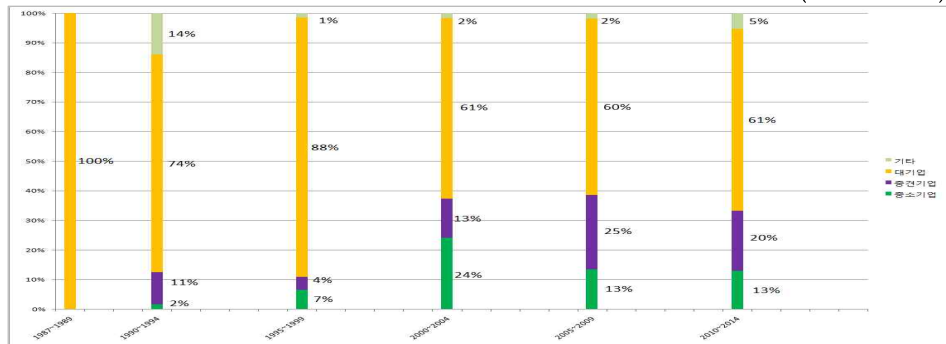
□ <그림 5>의 연도별 본 사업의 금액 기준의 참여비중을 보면 중소기업이 참여한 사업 금액(컨소시엄 지분금액 기준)은 '00~'04년 24%에 이른 적이 있으나, 최근 5년('10~'14년)에는 13% 수준으로 낮아졌다.

< 그림 5 > 연도별 중소기업 참여 비중

(건수 기준)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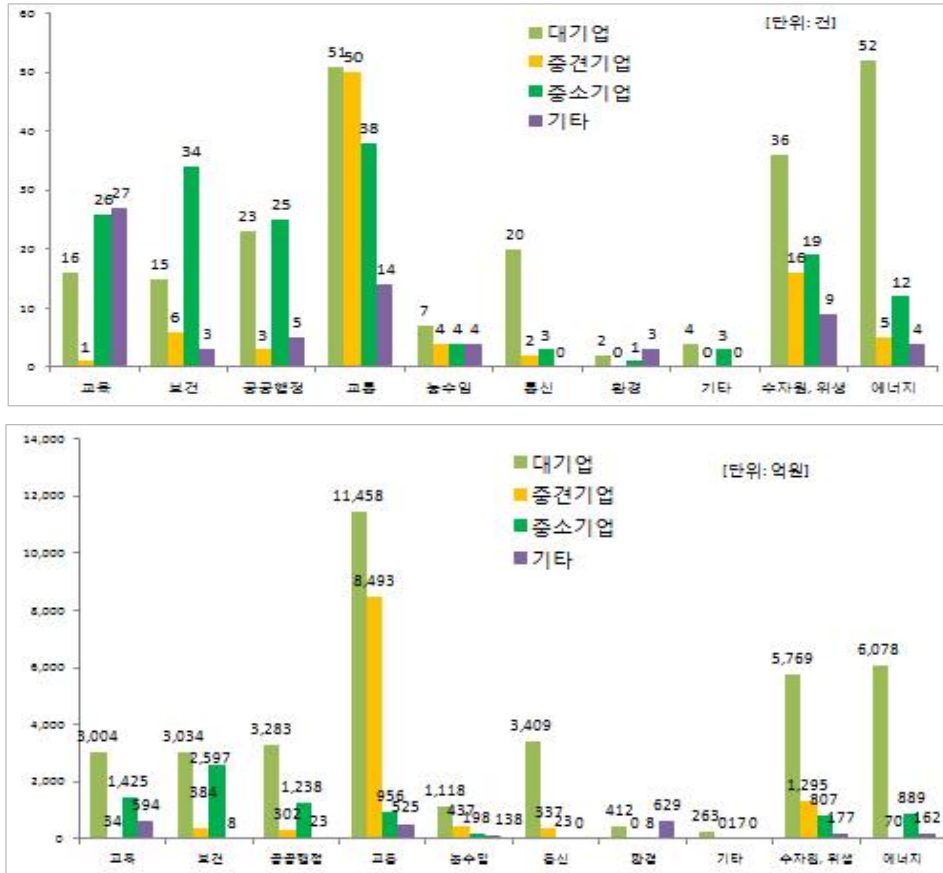
\* 계약연도 기준('87~'14.9월), 컨설턴트 사업 및 본 구매 사업 대상, 금액은 컨소시엄 지분금액 기준

- 중소기업이 참여한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00~'04년 약 1,870억원, '05~'09년 2,233억원, '10~'14년, 3,691억원으로 연도별로 전체 사업금액은 증가하였으나, 평균 금액은 약 133.6억원 → 50.8억원 → 38.69억원으로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는 사업 전체 규모에 비해 중소기업의 참여 건수가 '00~'04년 14건, '05~'09년 44건, '10~'14년 95건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대기업이 참여한 사업금액은 '00~'04년 4,738억원, '05~'09년 9,911억원, '10~'14년 1조 7,362억원으로 사업금액은 크게 확대되었고, 평균 금액은 각 128억원 → 177억원 → 248억원으로 높아졌다.
- 대기업 평균 사업 금액이 높아진 배경에는 공여국이나 다자개발은행 등이 외교적 홍보 효과를 확보하고자 1~2억불 규모의 대형 사업을 선호하고, 개발도상국도 교통, 수자원 및 위생, 에너지 등 SOC 사업을 선호하는 국제적인 경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 (2) 분야별 현황

- 분야별로 본 사업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 에너지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보다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 소액, 기자재 차관사업이 많은 분야에서 중소기업 참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 중소기업은 참여 건수 기준으로 교통(38건), 보건(34건), 교육(26건), 공공행정(25건) 분야 순으로 참여가 많다. 금액 기준으로는 보건(2,597억원), 교육(1,425억원), 공공행정(1,238억원) 순이다.

< 그림 6 > 분야별 현황 (건수, 금액)



\* 계약연도 기준('87~'14.9월), 컨설턴트 사업 및 본 구매 사업 대상, 금액은 컨소시엄 지분금액 기준

□ 2013년 산업연구원과 KOTRA(77개국 116개 KOTRA 무역관 참가)가 공동으로 조사한 국별 수출유망품목에서 EDCF 지원대상이 되는 개도국의 수출 유망품목을 살펴보면(별첨 3 참조) 보건 등 EDCF 주요 지원 분야 외에도 자동차 부품, 전기통신용 케이블 등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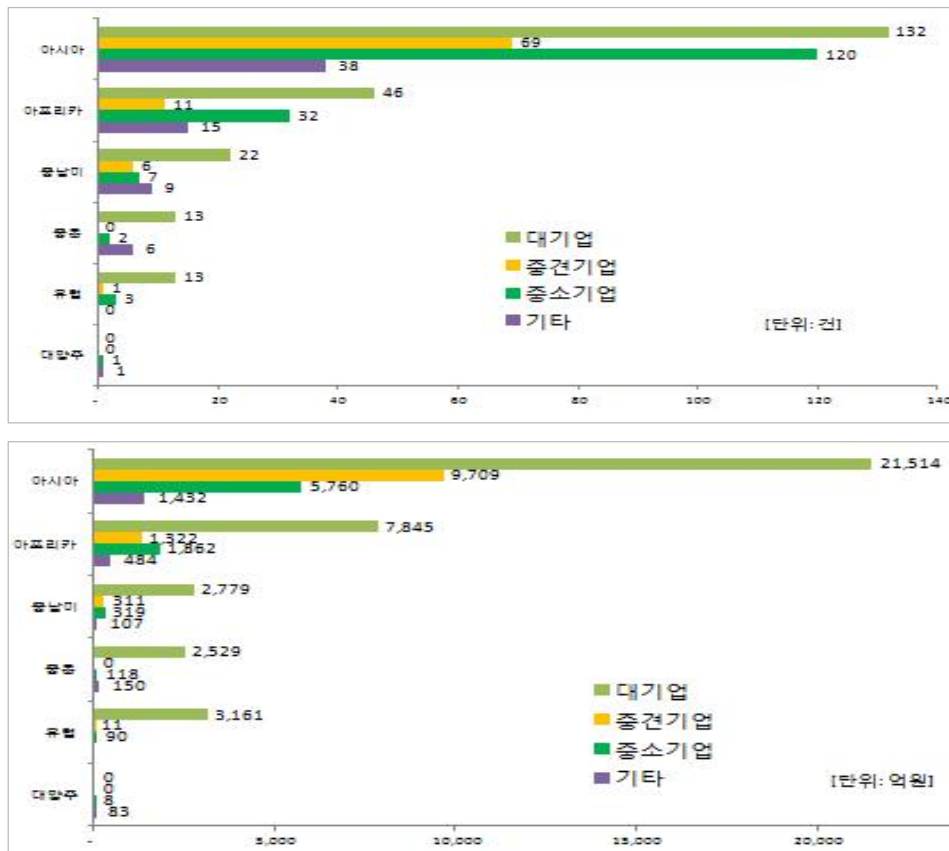
○ 중소기업청 등은 자력 수출능력이 부족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발굴하고 있어 해당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유망 품목 및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한다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ICT, 항만 분야 등 특정 분야는 사업수가 적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지역별 현황

- 지역별 본 사업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EDCF는 원조 효과가 높은 신흥 시장(아시아, 아프리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 또한 해당 지역에서 높음을 알 수 있다.
- 가장 비중이 높은 아시아 지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참여 건수 기준으로 120건, 금액기준으로 5,760억원의 사업에 참여하였다. 아시아 지역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 참여 건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이 높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비중이 낮다.

< 그림 7 > 지역별 현황 (건수, 금액)



\* 계약연도 기준(87~149월), 컨설턴트 사업 및 본 구매 사업 대상, 금액은 컨소시엄 지분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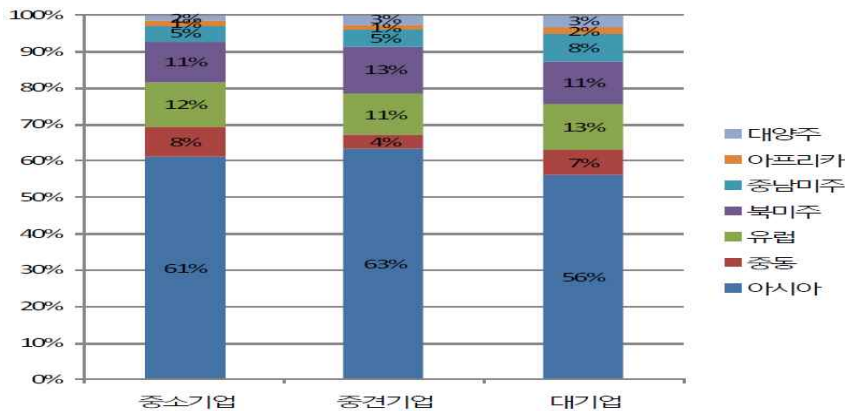
- 한편, EDCF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력 해외시장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1, 2 순위 합산 기준) 순으로 응답하였다.

< 그림 8 > 참여 중소기업의 주력 해외시장



-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12년 기준 한국 기업의 지역별 수출 비중을 통해 해외시장 의존도를 살펴보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특히 아시아와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과 지리적·문화적 격차가 큰 미국, EU,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시장의존도는 대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산업연구원, 2014. 2월)

< 그림 9 >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지역별 비중(2012년/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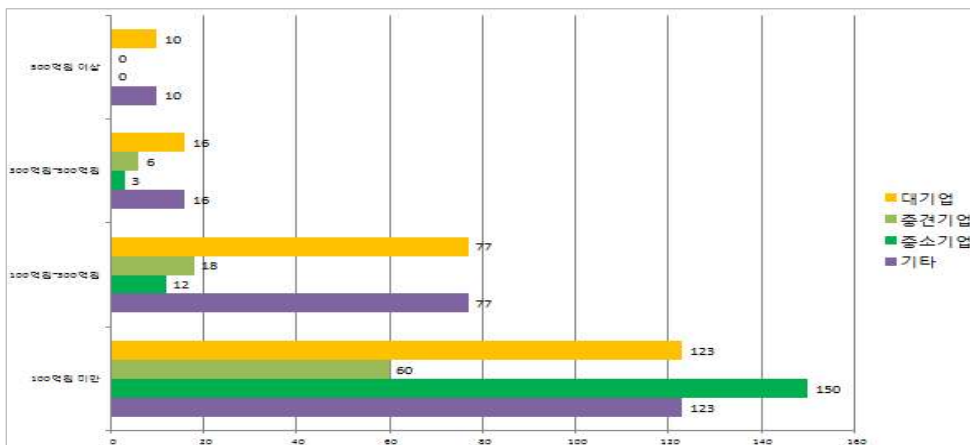


- 상기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지역과 EDCF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주력 해외시장, 실제 EDCF 사업 지역의 비중은 거의 일치하므로, EDCF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4) 규모별 현황

- 규모별 본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서, 대기업은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 세부적으로는 본 사업의 컨소시엄 지분금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EDCF의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2.7% 수준(15건/547건)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전체사업 중 27.4%(150건/547건) 수준으로 참여가 활발하다. 한편,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서 18.8%(103건/547건) 수준으로 참여가 활발하다.

< 그림 10 > 규모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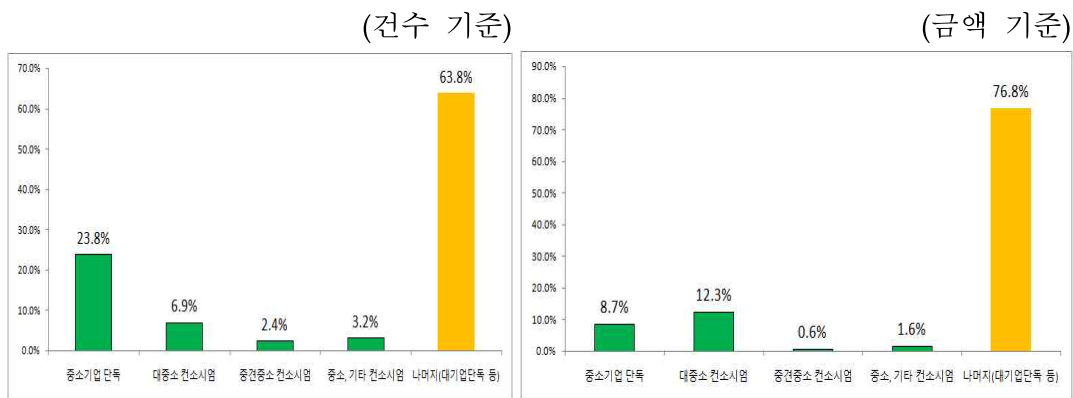


\* 계약연도 기준('87~'14.9월), 컨설턴트 사업 및 본 구매 사업 대상, 금액은 컨소시엄 지분금액 기준

## (5) 컨소시엄별 현황

- 중소기업이 참여한 본 사업의 컨소시엄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단독(중소기업 1개 혹은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은 건수 기준으로 23.8%, 금액 기준으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단독 컨소시엄은 참여 건수는 많지만,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림 11 > 컨소시엄별 현황



\* 계약연도 기준('87~'14.9월), 컨설턴트 사업 및 본 구매 사업 대상, 금액은 컨소시엄 지분금액 기준

-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은 건수 기준으로 6.9%, 금액 기준으로 1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의 경우 중소기업 단독 참여에 비하여 참여건수는 적지만, 사업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건수 기준으로 2.4%, 금액기준으로 0.6% 수준으로 다른 컨소시엄 형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수, 금액 기준으로 참여가 적다.

### <요약>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현황

- 연도별 분석 결과 전체 중소기업 참여 사업금액의 확대 비율보다 중소기업의 참여 건수의 증가 비율이 높아 평균 사업금액은 낮아졌다.
- 분야별 분석 결과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 소액, 기자재 차관 사업이 많은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비중이 높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비중이 높다.
- 규모별 분석 결과 중소기업의 참여는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 중소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 현황은 건수기준으로 중소기업 단독 컨소시엄, 금액기준으로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성과

□ 중소기업이 EDCF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달성한 구체적인 성과를 설문 조사를 통해 재무적인 측면과 비재무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1) 재무 측면의 성과

□ '13. 2월 한국무역협회의 중소기업 수출동향 및 수출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수출 중소기업 수는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85,866사(社)에 달하지만, 절반 이상 업체의 수출액이 10만 달러 미만으로 영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금액별로는 5만 달러 이하 수출 중소기업이 3.6만개로 전체의 42%를 차지했으며 10만 달러 이하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수출업체는 14,459개사로 전체의 약 17%에 불과하며, 연간 500만 달러 이상 수출업체는 3,992개사로 전체의 4.6%에 불과하다. 이는 2000년대 중반의 환율 급락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환경 악화로 인해 수출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수출저변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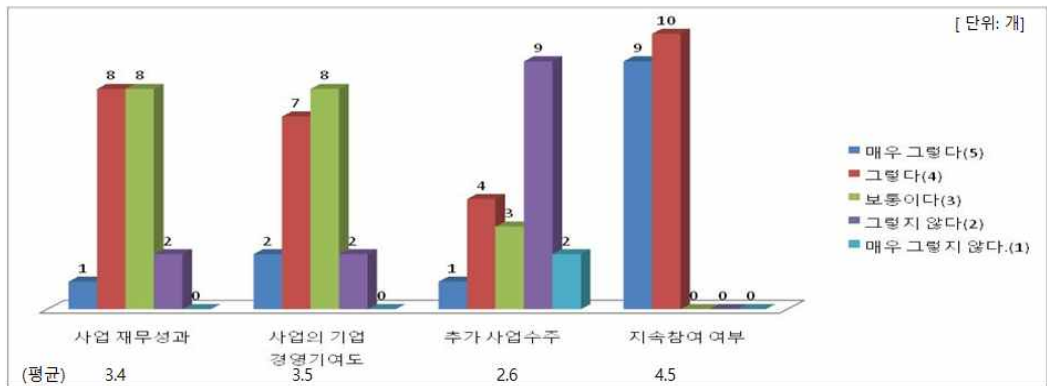
< 표 2 > 수출금액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단위: 개사, %)

업체 구분(수출액)	수출중소기업 수	비중	누적 비중
5만 달러 이하	35,843	41.7	41.7
5만~10만 달러 이하	8,865	10.3	52.1
10만~50만 달러 이하	19,726	23.0	75.0
50만~100만 달러 이하	6,973	8.1	83.2
100만~500만 달러 이하	10,467	12.2	95.4
500만~천만 달러 이하	2,041	2.4	97.7
천만~5천만 달러 이하	1,758	2.0	99.8
5천만~1억 달러 이하	149	0.2	99.9
1억~5억 달러 이하	42	0.05	100.0
5억~10억 달러 이하	2	0.002	100.0
<b>합계</b>	<b>85,866</b>	<b>100.0</b>	<b>-</b>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EDCF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는 재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EDCF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재무적인 측면에서 거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 재무적인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DCF 사업 참가 시 기대했던 재무 목표의 달성 여부는 평균 3.4점, 사업의 기업 경영 기여도에 대해서는 평균 3.5점으로 양호한 응답을 하였다.

< 그림 12 > 참여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



- 반면, 추가적인 해외진출 성과 여부에 대해서는 평균 2.6점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응답하여 EDCF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사업 수주는 적었음을 보여주었다.
- 다만 응답대상 19개 기업 중 3개사는 EDCF 사업 참여 경험이 개도국의 민자 사업, ADB 사업 등 추가적인 사업 수주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역량이 뛰어난 기업은 상당한 성과가 있는 반면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추가 수주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 추가 사업수주가 다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업에의 참여의사는 평균 4.5점으로 상당히 높았다. 불확실한 해외진출 환경 하에서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EDCF 차관사업은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한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EDCF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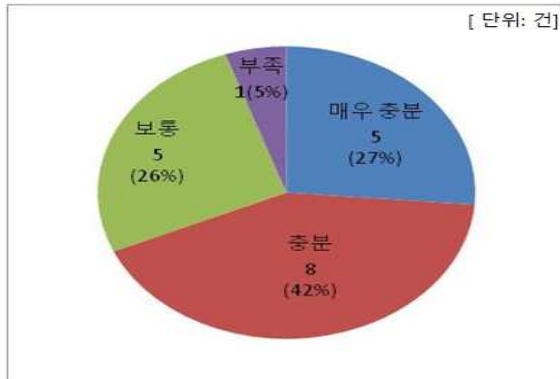
- 재무적 성과에 대한 설문 중 기타 의견으로, 개도국은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발주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금액이 작은 F/S 사업의 경우 재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컨설턴트 및 본 구매 사업 참여 기회를 위해 F/S 사업에 저가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있었다.
- 이러한 설문결과에 비추어 보면 F/S 사업의 경우 사업금액이 평균 2.7억원 수준으로 사업 자체만으로는 수익이 되기 어렵지만, F/S 사업 참여 경험이 컨설턴트, 본 구매 사업 참여의 기반이 될 수 있고 대상 개도국의 정보 획득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비재무적 성과(학습과 성장) 측면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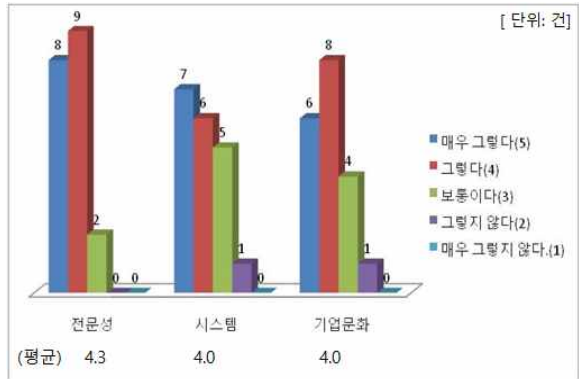
- 비재무적 성과, 특히 학습과 성장측면 성과도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해 단기적인 재무 성과만큼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실제로 EDCF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학습과 성장 측면에서 거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보유 역량에 대해 응답자의 69%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참여한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전문성, 시스템, 기업문화 등 조직 및 지식자산의 성장에 대해서는 각각 평균 4.3점, 4점, 4점으로 응답하여 EDCF 사업을 통한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13 > 참여 중소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해외진출 보유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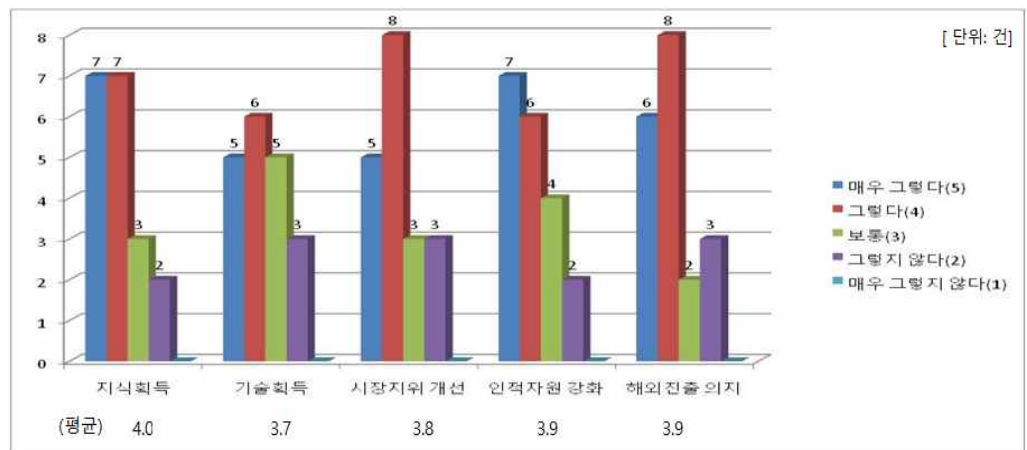
조직/지식 자산의 성장



□ EDCF 사업 참여 후 해외진출을 위해 기업 스스로 추진한 행동의 변화에 대한 결과로 지식 획득은 평균 4.0점, 기술획득은 3.7점, 시장 지위 개선은 3.8점, 인적자원 강화는 3.9점, 해외진출 의지는 3.9점으로 각각 응답하였다.

○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가 평균 3.7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는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를 넘어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기업 스스로 추가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14 > 추가적인 해외진출 활동



## <요약>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의 성과

### ☞ 재무적 성과

- 중소기업은 불확실한 해외진출 환경 하에서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EDCF 사업 참여를 통해 재무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 추가적인 사업수주의 성과는 일부 기업에 편중되어 있지만, 향후 사업 참여의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EDCF 사업을 발굴하고,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비재무적 성과

- 조직 및 지식 자산의 성장에 대한 응답 및 추가적인 해외 진출 활동에 대한 응답이 긍정적임을 감안할 때 EDCF 사업 참여는 중소기업 인력의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운영 시스템, 기업문화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 3.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의의 및 한계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추세)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에 기반을 두고 있다.(한국정책학회, 2012)
- (중소기업의 한계) 그러나, '12. 3월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해외진출 지원 기관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36.8%수준으로 중소기업은 수원국 법, 제도 및 현지 정보 등 정보력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
  - 또한, '13년 한국무역협회의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인력 현황' 자료를 보면 응답 중소기업의 28%가 '인력수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인력부족을 응답한 기업의 평균 인력부족 비율은 22%에 달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다.

< 표 3 > 중소기업 인력수급 현황(한국무역협회, 2013)

	응답기업 분포(%)				부족, 과잉 응답평균(%)	
	부족 응답	적정 응답	과잉 응답	소계	부족 평균	과잉 평균
생산직	21.9	76.6	1.4	100	22.6	21.4
무역직	19.4	80.0	0.6	100	27.0	18.8
연구직	21.5	78.2	0.3	100	27.8	15.0
전체	27.8	71.0	1.1	100	22.2	18.6

-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의의) 이처럼 중소기업이 시장정보, 인력 및 경험, 거래선 발굴 등 해외진출 초기단계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 및 개도국 정부가 공동 지원하는 EDCF 사업은 불확실성이 큰 해외진출에 야국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진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지에서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사업 기간에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경우 해외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한계)** 그러나, EDCF의 본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EDCF를 통해 개도국에 적극 진출 중인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참여는 '87~'14. 9월 사이에 건수 기준 23.1%(참여건수), 금액 기준 13.6%(컨소시엄 지분금액)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중소기업에 경쟁력이 있는 분야(교육, 보건 등)가 제한돼 있으며, 규모(100억원 미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 이러한 저조한 참여는 고위험 장기 사업이라는 본 구매 사업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구매 사업은 본 사업 중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평균 약 240.9억원) 사업발굴에서 완공까지 통상 5~6년이 소요되는 긴 사업기간을 가진 고위험 대형 인프라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성상 대기업에 비해 사업수행경험, 재무구조, 인력 등 많은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하기에는 불리하다.
  
- 또한, 개도국 정부는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차관자금의 특성상 차주(借主)인 개도국 정부가 직접 업체선정·구매계약 등을 담당하고, EDCF는 절차의 공정·투명성을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중소기업 참여를 직접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 Ⅲ. 중소기업 참여유형별 특성 및 현황

□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EDCF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EDCF 사업 추진 절차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유형별 특성 및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 EDCF 사업 추진 절차

##### ○ 사업발굴 및 준비

- EDCF 지원사업은 수원국 개발우선순위, 사업 타당성, 수원국 정부의 지원 요청 등을 고려하여 발굴된다. EDCF 차관사업의 경우 종전 개도국 정부부처 및 민간기업의 발굴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도국 정부와 아국간 정책 협의(policy dialogue)를 통해 직접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 개도국 정부는 소정의 지원요청서와 사업타당성검토 보고서(Feasibility Study, F/S) 및 사업실시계획서(Implementation Plan, I/P)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며, 통상 이러한 지원 요청은 수원국 소재 한국 대사관을 경유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된 후 외교부 장관은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지하게 된다.

☞ 중소기업은 사업발굴 및 준비 단계에서, EDCF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타당성 조사(F/S) 과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다.

## ○ 사업의 심사 및 지원방침 결정

- 차관사업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원국의 지원요청서를 접수하여 수출입은행에 심사를 의뢰한다. 수출입은행은 수원국이 OECD 수출신용협약상의 원조자금 지원적격국인지 여부와 차관자금회수 위험이 현존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며, 사업타당성 조사(F/S), 사업 실시 계획서(I/P) 등을 검토하여 상업성 여부 확인 예비 검토를 진행한다.
- 예비 검토가 끝난 뒤 차주 및 사업실시기관 앞 사업법률질의서 송부 및 답변서 접수하고, 심사역, 기술전문가, 법규역(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수원국에 파견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한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심사출장을 통하여 수출입은행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지실사를 마친 후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 기획재정부는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타 사업의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지원규모,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 방침을 결정한다.

## ○ 정부간 협정 및 차관계약 체결

-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되면 외교부 장관은 지원결정내용을 요약한 지원방침(Pledge)을 당해 원조수혜국 정부에 통보하고, 원조수혜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수락의사를 통보하여 오면,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차관공여계약(Loan Agreement)은 국제 금융계약의 일종으로 정부간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것으로 한국 수출입은행과 차주인 수원국 정부(수원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또는 수원국의 법인을 당사자로 하고, 차관조건, 구매절차, 자금 지출 절차 및 차관자금 관리 등 제반 세부사항에 관한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다.

## ○ 사업 실시 및 감리

- 사업 실시 및 감리 단계에서는 사업 실시에 필요한 컨설턴트 고용이나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기금지원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차주 또는 사업실시기관은 경제성(공급물품의 경제성), 효율성(공급물품의 적격성) 및 공평성(구매적격국 입찰 참가자간의 차별금지)에 따라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매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차주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수출입 은행은 대주(lender)로서 차관계약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매의 전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를 점검하게 된다.

☞ 중소기업은 사업실시 및 감리 단계에서, 수원국이 발주하는 컨설턴트 사업 또는 본 구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 평가 및 사후 관리

-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는 사업의 진행과정 및 목적에 따라 사업완공 전의 관리와 사업완공 후의 관리로 구분되며, 사업완공 후의 관리는 완공보고서 접수 시점에 이루어지는 완공점검과 완공점검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사후평가로 구분된다. 사후평가는 사업의 목적 달성여부와 사회경제적 지원 효과를 파악하는 동시에 사업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하고 제언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업 추진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sup>1)</sup>

1) [www.edcfkorea.go.kr](http://www.edcfkorea.go.kr) 홈페이지 참조

< 그림 15 > EDCF 지원절차



□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방법

- 중소기업이 EDCF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① 사업타당성 조사 ② 본 구매 컨설턴트 ③ 본 구매(건설 및 기자재 공급 등)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컨설턴트 사업 및 본 구매 사업은 개도국 발주 사업으로 개도국이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EDCF는 차관계약서, 구매 계약서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게 된다.

< 표 4 > EDCF 참여유형 개요

EDCF 참여유형	사업내용	사업자 선정 주체	평균사업규모
① 사업 타당성 조사 (F/S)	사업목적 및 필요성, 기본설계, 사업비 산정, 경제적·재무적·기술적 타당성 분석 등	EDCF	2.7억원
② 본사업 구매 컨설턴트	상세설계, 입찰서류 작성, 사업관리, 감리 등	수원국 정부	22.4억원
③ 본사업 구매	건설·시공, 자재공급 등	* EDCF는 입찰 공정성을 관리	240.9억원

\* 계약연도 기준('87~'14.9월), 평균사업규모 = 전체 사업규모/전체 사업건수

□ 참여유형별 중소기업 현황

- 참여 건수 기준으로 본 구매 컨설턴트 사업 (전체 사업 중 45.4%) > F/S 사업(36.3%) > 본 구매 사업(21.8%) 순(順)으로 중소기업이 참여 중이다.
- 특히 본 구매 사업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은 12.3%로 대기업 6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 본 구매 사업은 대부분 규모가 큰 인프라 사업인 관계로 중소기업이 수주하기가 다소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표 5 > EDCF 참여유형별 중소기업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F/S		컨설턴트				본 구매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대기업	5	2.6	19	9.8	339	10.5	207	58.6	37,490	66.5
중견기업	72	37.3	42	22	1,080	33.5	45	12.7	10,272	18.2
중소기업	70	36.3	88	45.4	1,250	38.8	77	21.8	6,908	12.3
기타	46	23.8	45	22.8	554	17.2	24	6.9	1,702	3
합계	193	100	194	100	3,223	100	353	100	56,372	100

\* 계약연도 기준('87~'14.9월)

\*\* 건수는 사업 참여 건수, 금액은 본 구매/컨설턴트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지분금액 기준

\*\*\* 기타 :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 아래에 F/S 사업, 컨설턴트 사업, 본 구매 사업의 참여유형별 특성, 절차, 현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 1. 사업타당성 조사(F/S)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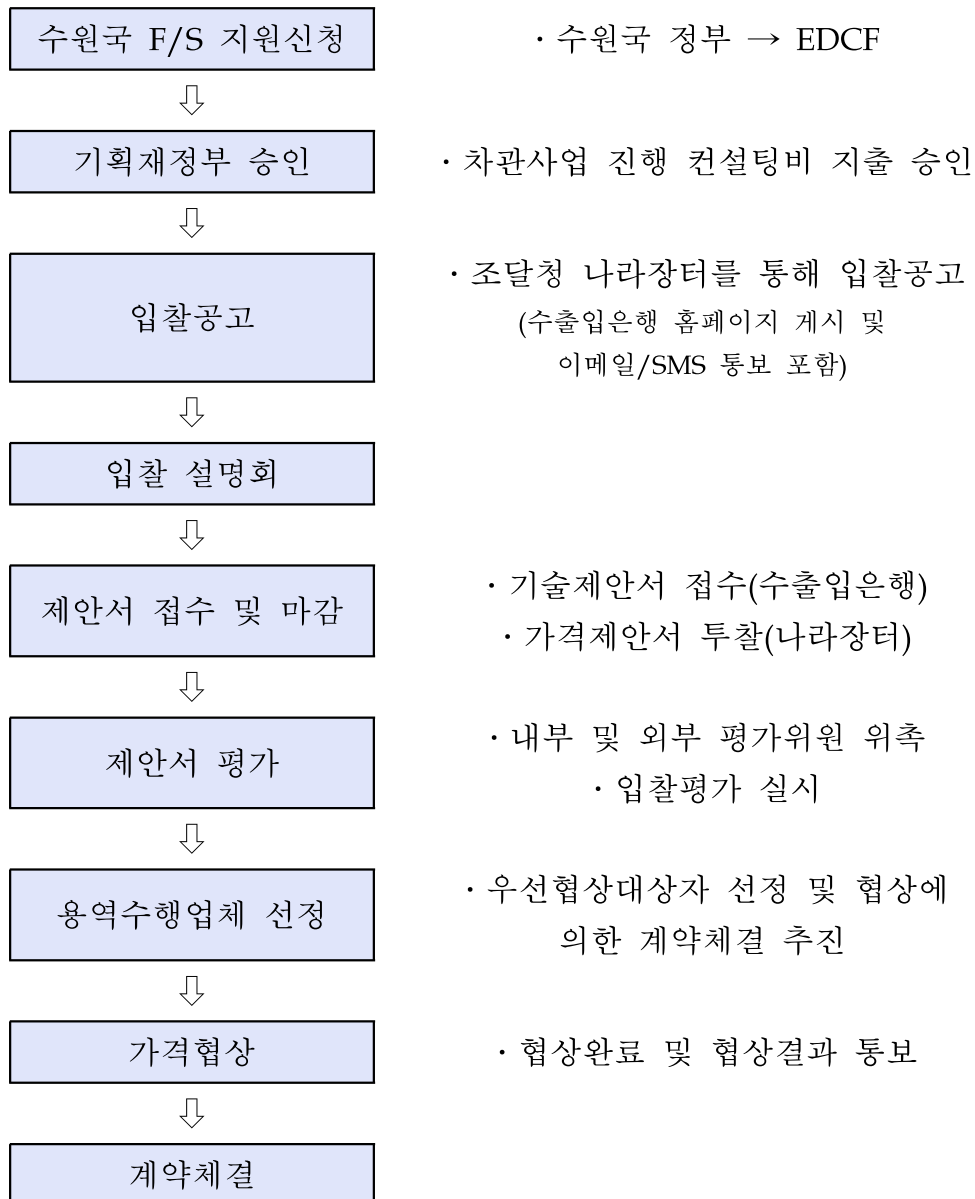
### □ 개요

- 사업타당성 조사(F/S)는 EDCF가 지원할 예정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규모 및 예산 등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이다.
- EDCF는 차관사업의 준비, 실시 및 운영 관리 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수원국이 자금과 노하우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타당성 조사(F/S) 작성 또는 이미 작성된 사업타당성 조사(F/S)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등 사업 준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수원국이 차관지원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EDCF는 지원 여부를 검토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얻어 F/S를 수행하는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F/S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F/S 사업의 명확한 개념이 부재하거나 수행방법이 수원국과 사전 협의되지 않을 경우, EDCF는 사업의 진행에 앞서 EDCF와 수원국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 개념(Concept)을 확정하는 PCP(Project Concept Paper)를 '13년부터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 F/S 사업의 목적은 사업의 시행 전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재화, 용역의 구매(시공)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하거나 기타 EDCF 사업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 F/S는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규시장 개척, 사업발굴, 원활한 정책 결정 및 심사를 가능하게 하여 EDCF 지원 확대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이 해외사업 수행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지원 절차

○ F/S 사업의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다.

< 표 6 > F/S 사업 지원 절차



□ F/S 사업 현황

○ EDCF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총 113개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F/S) 사업을 지원하였다. 지원규모는 약 307.5억원이며, 193개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였다.

○ 중소기업의 F/S 사업 참여 건수는 전체 193건 중 70건으로 36.3%이며, 사업 금액\*은 약 169억원으로 54.9%를 차지하고 있다.

\* 중소기업이 한 개사 이상 참여한 사업의 금액의 합

○ EDCF 예산 중 차관사업 컨설팅비는 사업준비, 사업실시, 사후관리 단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컨설팅 예산이다. 이 중 사업 준비 단계에 해당되는 F/S 사업에 대한 지원은 '13년 기준으로 차관사업 컨설팅비의 약 74%(집행금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 차관사업 컨설팅비\*(F/S 실시 또는 보완과 관련된 예산 포함)는 '11년 59.6억원에서 '12년 55.5억원으로 소폭 축소되었지만, '13년 60.9억원, '14년 72.3억원으로 확대되었다.

\* F/S 사업을 위한 차관사업 컨설팅비는 수원국의 요구가 있고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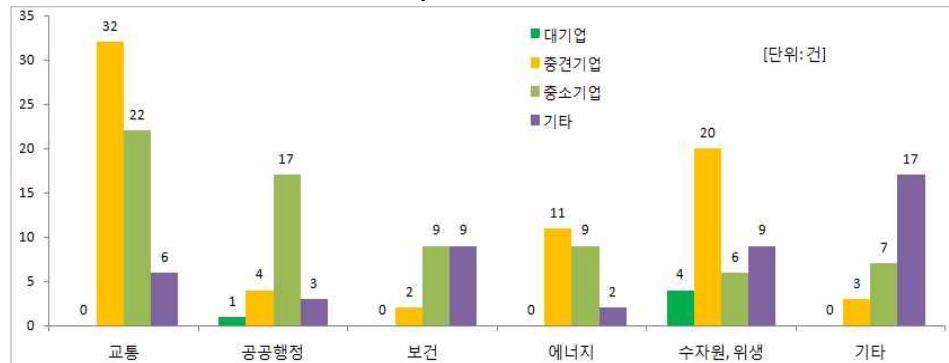
○ (분야별) 중소기업의 F/S 사업 참여 건수는 교통(31%), 공공행정(24%), 보건(13%)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표 7 > F/S 사업 참여 분야

구 분	교통	공공행정	보건	에너지	수자원, 위생	기타	합 계
참여 건수	22	17	9	9	6	7	70
비중	31%	24%	13%	13%	9%	10%	100

- F/S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건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컨설턴트 사업, 본 구매 사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비교적 과업 내용이 단순한 F/S 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 그림 16 > F/S 사업 분야별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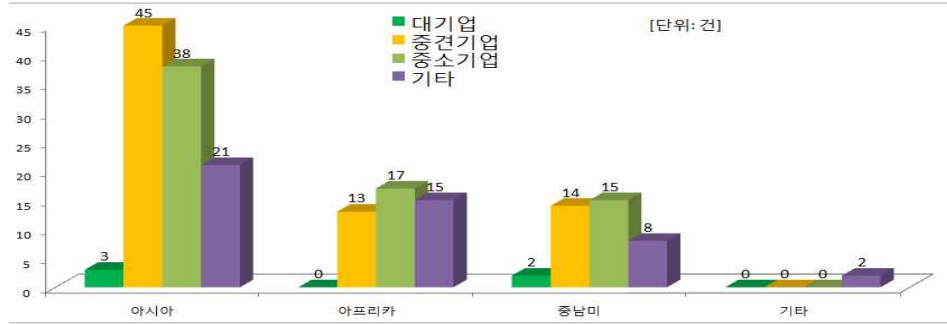
- (지역별) 본 사업이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F/S 참여 건수 또한 아시아(54.3%), 아프리카(24.3%)가 가장 많다.

< 표 8 > F/S 사업 참여 지역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합 계
참여 건수	38	17	15	70
비중	54.3%	24.3%	21.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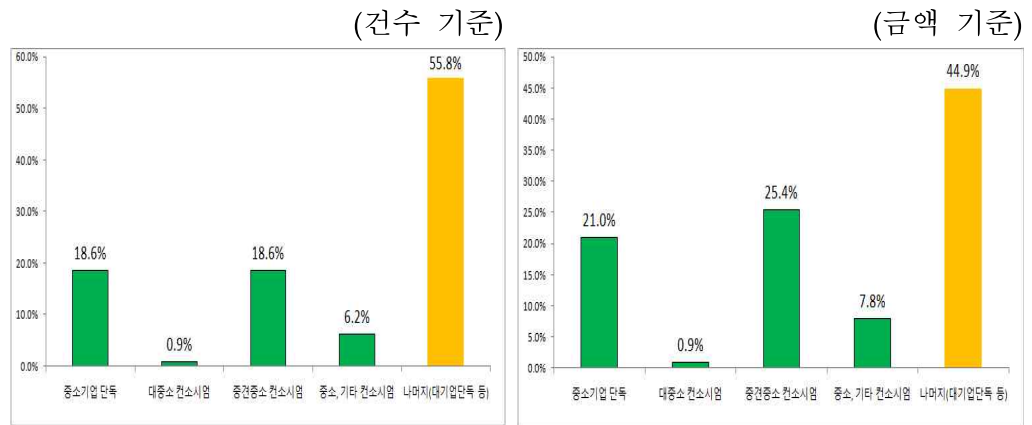
- F/S 사업의 지역별 참여현황을 비교해보면, 본 사업 현황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의 참여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 그림 17 > F/S 사업 지역별 참여 현황



- (컨소시엄 비중별) F/S 사업의 컨소시엄 현황을 살펴보면 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 형태가 참여 건수 기준으로 18.6%, 금액 기준 2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그림 18 > F/S 사업 컨소시엄 현황



< 요약 > F/S 사업 현황

F/S는 사업 금액은 작지만 본 구매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가 단순한 과업상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지역별, 컨소시엄 현황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 2. 본 구매 컨설턴트 사업

### □ 개요

- EDCF는 사업의 준비, 실시 및 운영 등을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차주(개발도상국)의 컨설턴트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차주는 과업분야의 경험·실적, 과업수행 방법·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 인력 등을 고려하여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컨설턴트는 상세설계, 입찰서류 작성, 사업관리 및 감리 등의 과업을 수행하며, 차주에게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수행한다. 컨설턴트 선정, 고용계약 체결 및 이행은 차주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한국업체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컨설턴트를 선정한다. 차주는 컨설턴트 고용계획을 작성하여 차관공여계약서 체결 전까지 수출입은행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차관계약(L/A)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컨설턴트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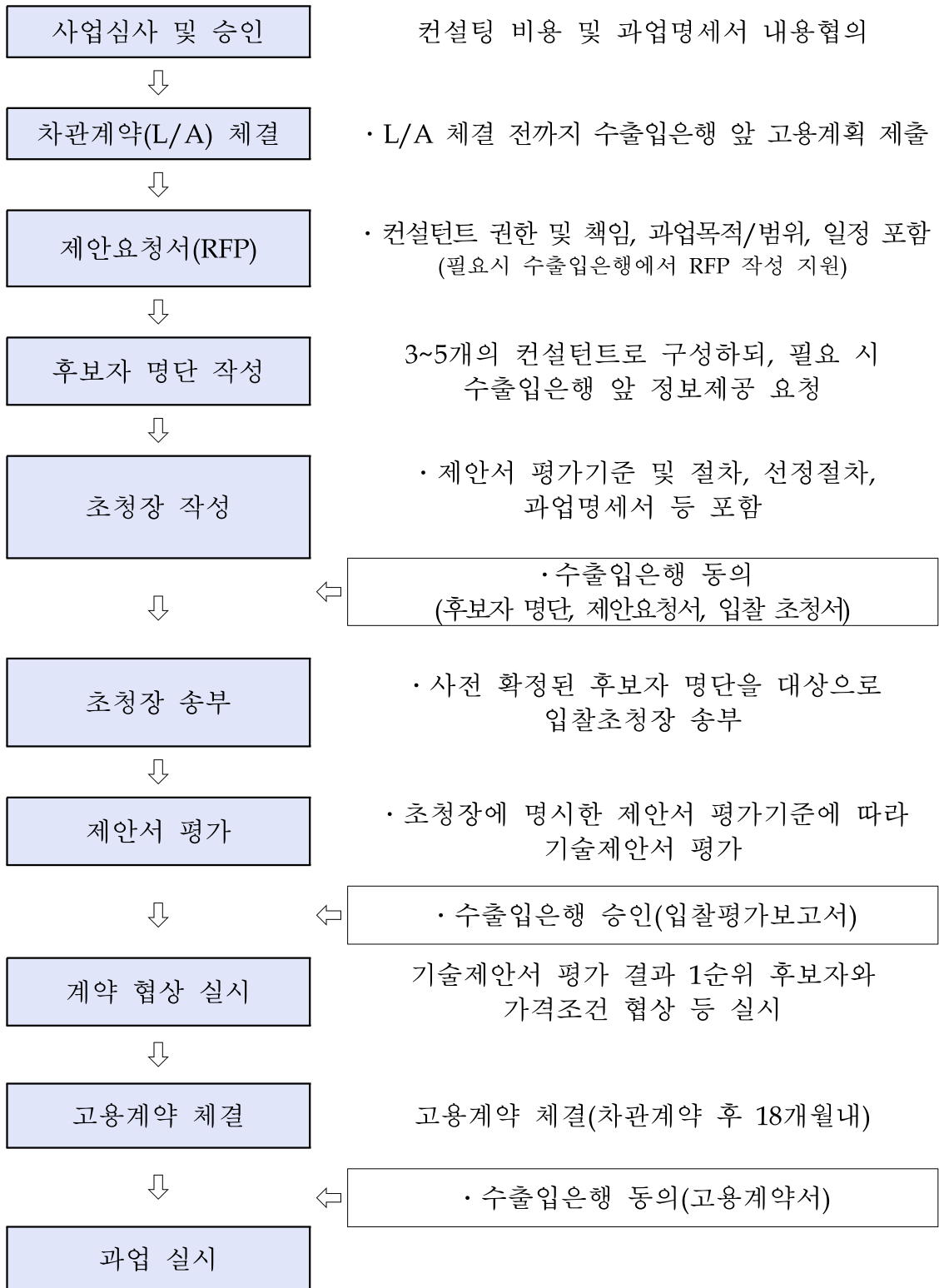
\* 3~5 개의 컨설턴트로 구성된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기술평가 결과 1 순위 후보자와 재무 협상을 거쳐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 지원 절차

- 컨설턴트의 주요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컨설턴트 고용 제안요청서(RFP) 작성 → 후보자명단 작성 → 초청장 송부  
→ 제안서(기술 + 가격) 제출 → 기술제안서 평가 → 1순위 후보자와  
가격협상 실시 → 고용계약 체결

< 표 9 > 컨설턴트 고용 절차



○ 컨설턴트의 세부적인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컨설턴트 고용 계획 수립

- 차주는 사업 심사 시 수출입은행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된 과업 명세서 내용 및 컨설팅 비용 등을 반영하여 컨설턴트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관계약(L/A)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 수출입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컨설턴트 고용제안서 작성

- 차주는 컨설턴트의 권한, 과업 범위, 고용방법 및 계약내용 등을 명시한 컨설턴트 고용제안서(RFP: Request for Reference)를 작성한다. 특히 컨설턴트 업무 처리 시 고려사항, 차주의 대리인으로서 컨설턴트가 갖는 권한의 범위, 사업의 배경, 이용 가능한 기본자료, 사업 설계 표준의 종류, 과업 수행 조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게 된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표준 컨설턴트 고용제안서(RFP)를 제정하여 차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주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RFP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③ 컨설턴트 고용 절차

[Short List 작성]

- EDCF는 차주가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경쟁입찰 방식 채택 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점을 고려하여 Shortlist 방식을 이용한 컨설턴트를 고용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 차주는 컨설턴트를 고용하기 위해 3~5개 업체로 구성된 후보자 명부를 직접 작성하거나 수출입은행에 후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차주가 은행에 Shortlist 후보 정보제공을 의뢰할 경우, 은행은 관련 협회나 정부부처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후보정보를 차주에게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차주가 Shortlist를 작성하게 된다.

- Short List의 선정기준은 ① 과업분야의 적격성 ② 참여사의 기술적·관리적 역량 ③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 및 업력 ④ 주요 인력의 적격성 ⑤ 발주자의 선호도 및 행정·재무적 강점 등이 있다.

#### [선정 방법]

- EDCF는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컨설턴트가 고용되도록 입찰자의 기술제안서를 우선 평가한 후 제 1 순위자와 가격협상을 진행하는 QBS(Quality Based Selection)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차주는 기술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로부터 재무제안서를 제출받아 재무협상을 진행한다. 다만, 차주가 입찰자로부터 기술제안서 및 재무제안서를 동시에 제출받은 경우에는(two-envelopment system) 기술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재무 제안서를 사전에 미리 개봉할 수 없다.

#### [기술 제안서 평가]

- 차주는 최적의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 제안서 평가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은 ① 과업분야의 일반적 경험 및 실적, ② 제안된 업무수행 방법론 및 수행계획의 적절성, ③ 과업 수행 인력의 경험 및 경력, ④ 기타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차주는 기초기준을 바탕으로 사전에 세부기준 및 배점을 확정하고 제안요청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컨설턴트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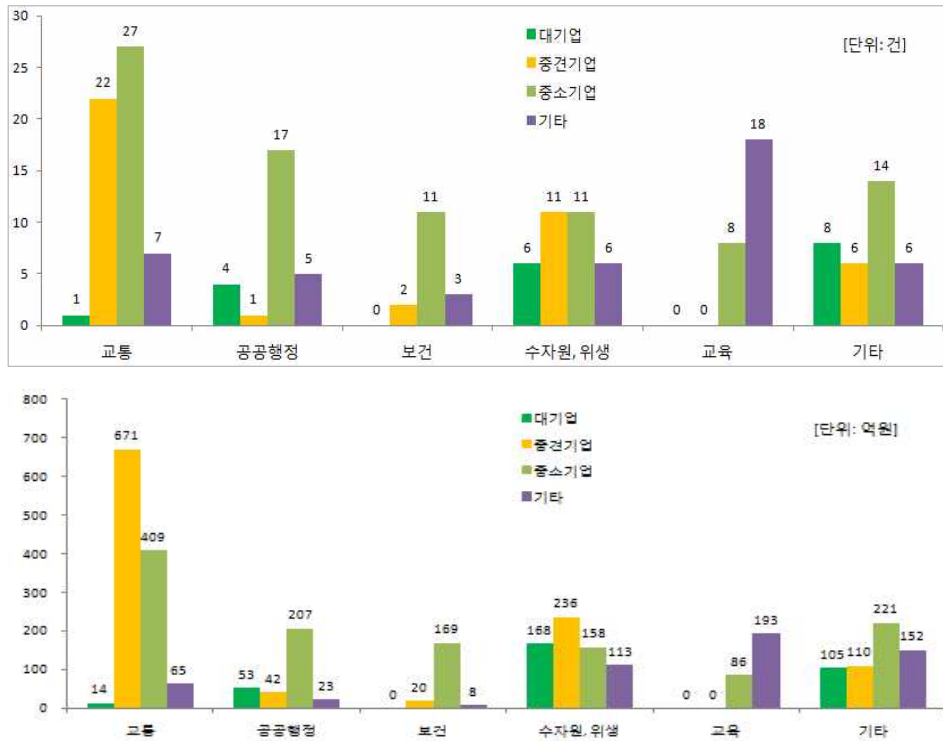
- EDCF는 '87년 이후 총 144개 사업에 대한 본 구매 컨설턴트 사업을 지원하였다. 지원규모는 약 3,223억원이며, 사업 전체 참여 건수는 194건이다.
- 중소기업 참여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전체 컨설턴트 참여건수 194건 중 88건으로 약 45%이며, 금액 기준(컨소시엄 지분금액)으로 약 1,250억원으로 전체사업 금액 3,223억원 중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 컨설턴트 사업의 중소기업 평균 수주금액은 14.2억원(88건, 1,250억원)으로 대기업은 17.8억원(19건, 339억원)이다. 컨설턴트 사업은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강점을 가진 사업의 특성으로 참여유형 중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장 높다.
- (분야별) 중소기업은 참여 건수, 금액 기준 모두 교통(27건, 409억원), 공공행정(17건, 207억원) 분야의 사업에 가장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 표 10 > 컨설턴트 사업 참여 분야

구 분	교통	공공행정	보건	수자원, 위생	교육	기타	합 계
참여 건수	27	17	11	11	8	14	88
금액 (억원)	409	207	169	158	86	221	1,250
비중 (금액)	33%	17%	14%	13%	7%	16%	100

- 컨설턴트 사업의 경우 수자원, 위생 및 에너지 분야를 제외하고, 중소기업 참여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19 > 컨설턴트 사업의 분야별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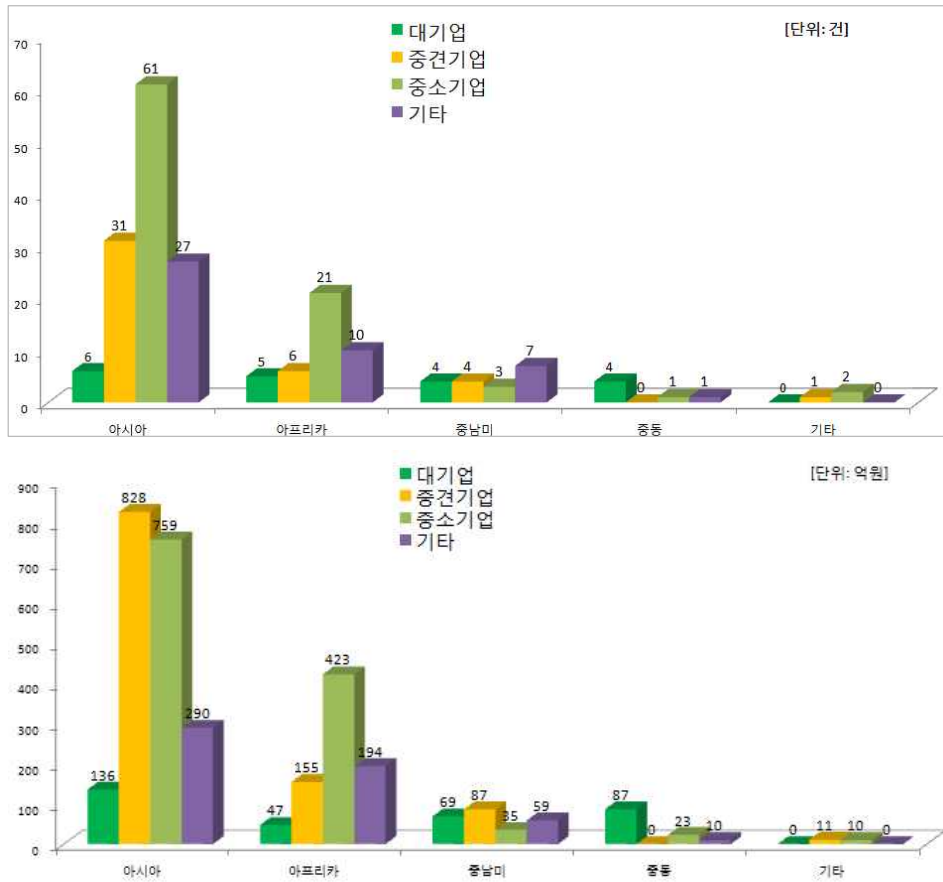
- (지역별) 중소기업의 컨설턴트 사업 참여 비중 또한 아시아(61건, 759억원), 아프리카(21건, 423억원) 순(順)으로 높다.

< 표 11 > 컨설턴트 사업 참여 지역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기타	합 계
참여 건수	61	21	3	1	2	88
금액 (억원)	759	423	35	23	10	1,250
비중 (금액)	60.7%	33.9%	2.8%	1.8%	0.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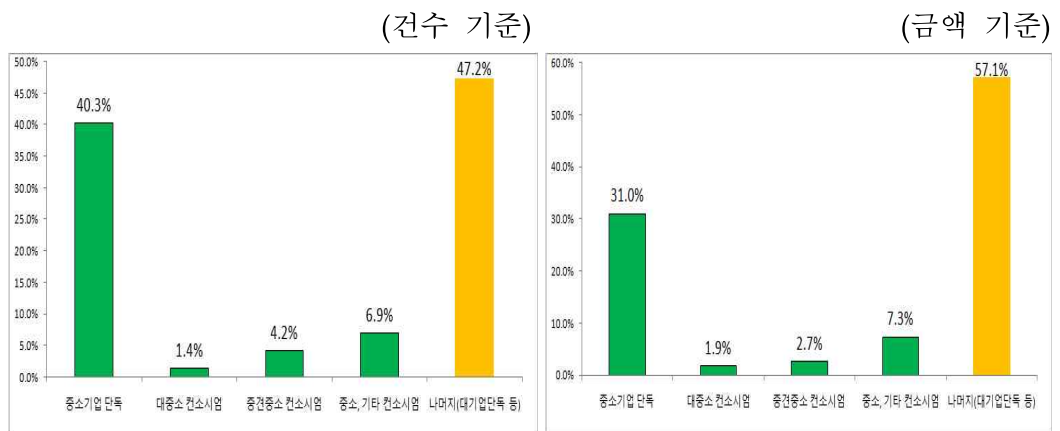
- 지역별 참여현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컨설턴트 사업의 경우에도 본 사업 전체 현황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참여비중이 높다.

< 그림 20 > 컨설턴트 사업 지역별 참여 현황



- (권소시업 비중별) 컨설턴트 사업의 권소시업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단독 권소시업이 건수(40.3%), 금액(31%) 측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그림 21 > 컨설턴트 사업 권소시업 현황



#### <요약> 컨설턴트 사업 현황

-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강점을 가진 사업의 특성으로 참여유형 중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다.
- 분야별로는 수자원, 위생 및 에너지 분야를 제외하고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하며, 지역별로는 전체 현황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참여비중이 높다. 컨소시엄 현황은 중소기업 단독 컨소시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3. 본 구매 사업

#### □ 개요

- 본 구매는 인프라 구축 및 이에 필요한 설비나 기자재 공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사업으로 수원국 정부의 책임 하에 수원국의 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 구매방식으로는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경쟁구매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제성,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업체간 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수원국 정부는 차관공여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수출입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동의를 받아 구매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구매절차 진행 중 입찰서류, 입찰평가보고서, 낙찰제의서, 구매계약서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찰평가는 입찰참여 기업의 동종 또는 유사사업 경험과 실적, 입찰참여 기업 보유인력·장비 등의 계약이행 능력, 재무적 건전성, 기술과 가격조건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차주는 수출입은행의 승인을 얻어 입찰 낙찰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EDCF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원국 정부 또는 사업실시기관이 차관계약 (L/A)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컨설턴트 고용계약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 □ 지원 절차

○ 본 구매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입찰참가기업에 대한 사전적격심사 (필요시 실시)
- ② 사업실시기관의 입찰서류작성 및 입찰서류 동의신청
- ③ EDCF의 입찰서류 동의
- ④ 사업실시기관의 입찰공고
- ⑤ 입찰실시
- ⑥ 사업실시기관의 입찰평가 및 평가결과 승인 신청
- ⑦ EDCF의 입찰평가결과 승인
- ⑧ 낙찰자 결정, 구매계약 체결 및 EDCF의 동의

○ 구매 절차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구매계획

#### [구매 계획 수립]

- 구매계획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전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구매시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구매계획 수립단계에서 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 구매방식을 확정한다. 차주는 구매계획 수립 시 수출입은행과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구매계획을 확정 후, L/A 체결 전까지 수출입은행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차주는 구매품목을 토대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구매품목은 지원 사업의 완공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 토목공사 및 용역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구매 계획은 구매계약 패키지 작성, 구매방법결정 및 구매절차 실행일정 순으로 진행된다.

#### [구매계약 패키지 작성]

- 최적의 재화와 용역을 적시에 공급하고 구매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매계약 패키지를 결정한다. 구매계약 패키지 결정 시 먼저 단일 패키지의 효율성 여부를 검토하며,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유사한 재화와 용역을 묶어 발주하도록 하고 있다. 차주는 심사단계에서 수출입은행과 협의를 거쳐 구매계약 패키지를 결정하며, 지원사업에 대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 [구매일정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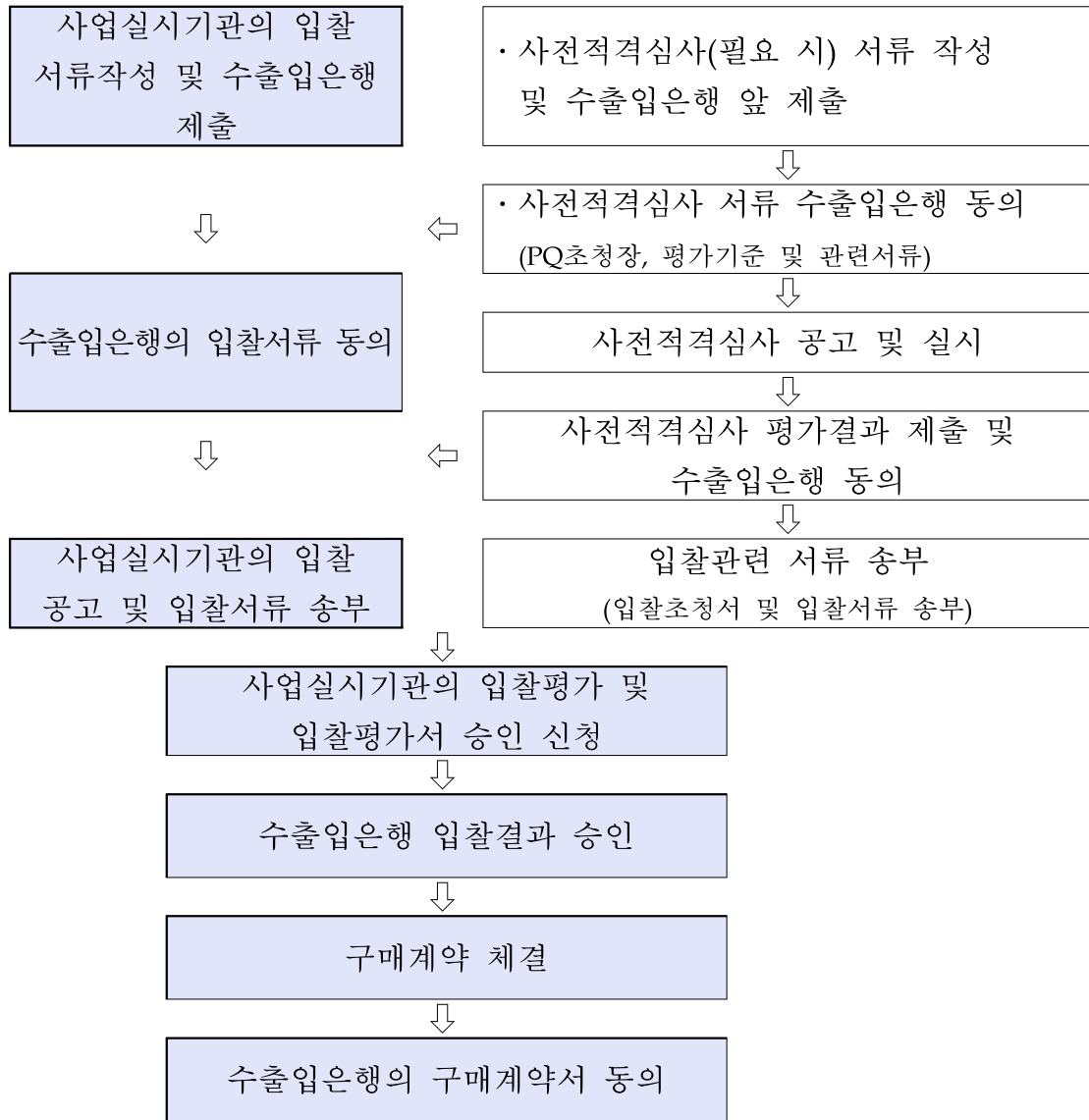
- 구매일정은 재화와 용역이 지원사업에 필요한 시점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 구매단계별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구매일정을 수립한다. 또한 지원사업 분야에 관심있는 사업자에게 충분한 입찰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입찰 절차

< 표 12 > 본 구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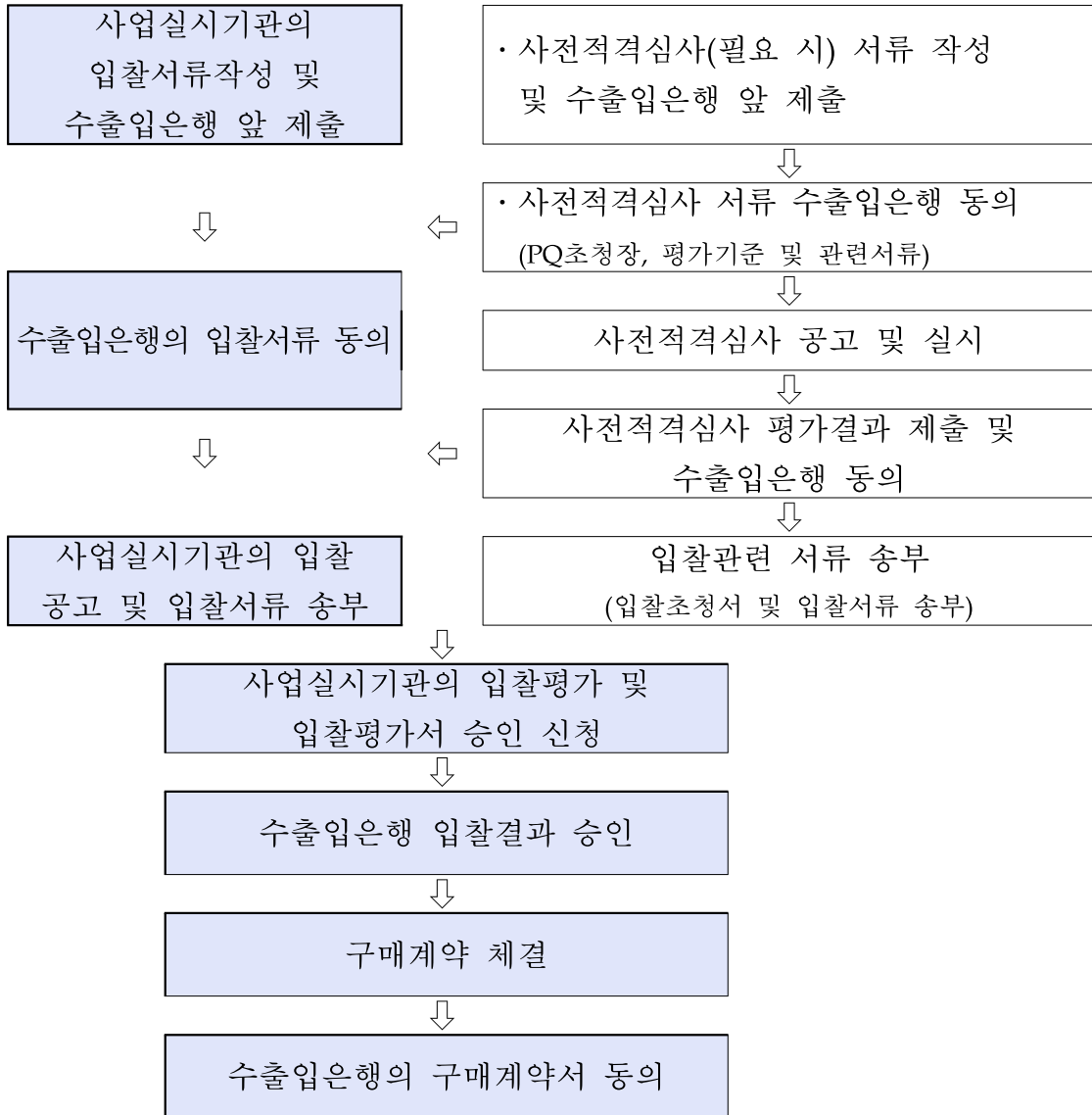
[경쟁 입찰]



## [제한 경쟁 입찰]

[차주가 직접 List 작성]

[차주가 은행 앞 List 요청]



□ 본 구매 사업 현황

- EDCF는 '87년 이후 총 234개 사업에 대한 본 구매 사업을 지원하였다. 지원 규모는 약 5조 6,372억원이며, 사업 전체 참여 건수는 353건이다.
- 중소기업 참여비중은 353건 중 77건으로 22%이며, 중소기업의 사업 규모(권소사업 지분금액)는 6,908억원으로 전체사업 금액 5조 6,372억원 중 12%를 차지하고 있다. 본 구매 사업의 중소기업 평균 수주금액은 89.7억원(77개, 6,908억원)으로 대기업의 181억원(207개, 3조 7,49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 본 구매 사업의 경우 교통, 에너지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많아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 (분야별) 중소기업은 참여 건수, 금액 기준 모두 보건(23건, 2,428억원), 교육(18건, 1,338억원) 분야의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 표 13 > 본 구매 참여 분야

구 분	보건	교육	교통	공공 행정	수자원, 위생	기타	합 계
참여 건수	23	18	8	11	8	9	77
금액 (억원)	2,428	1,338	1,031	547	649	915	6,908
비중 (금액)	35%	19%	15%	8%	9%	14%	100

- 분야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참여현황을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은 교육, 보건 분야에서 대기업보다 활발히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22 > 본 구매 사업의 분야별 참여 현황



○ (지역별) 본 구매 사업의 경우에도 주요 참여 지역은 아시아(59건, 5,001억원), 아프리카(11건, 1,439억원) 순이다.

< 표 14 > 본 구매 참여 지역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중동	합 계
건수	59	11	4	2	1	77
금액 (억원)	5,001	1,439	284	89	95	6,908
비중 (금액)	73%	21%	4%	1%	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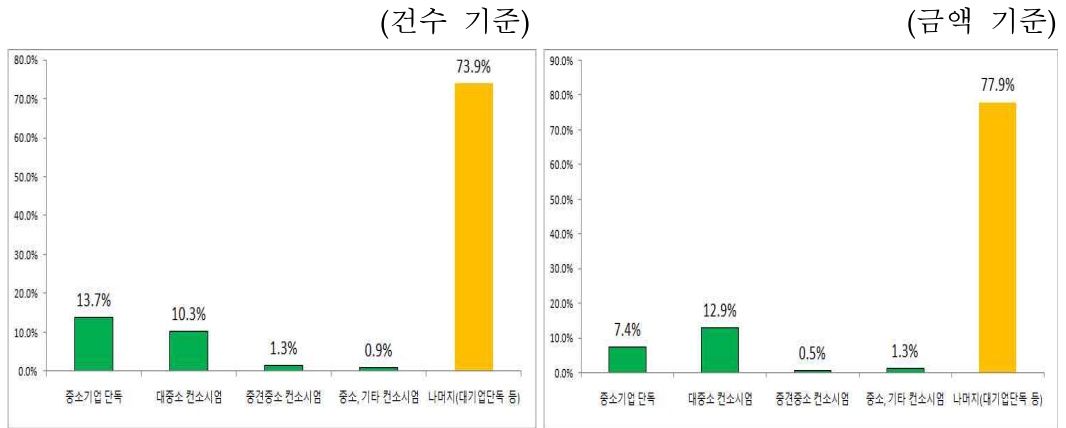
- 본 구매 사업의 지역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참여현황을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본 사업 전체현황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아프리카 순으로 참여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23 > 본 구매 사업의 지역별 참여 현황



- (권소시업 현황) 본 구매 사업의 권소시업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 기준(권소시업 지분 금액)으로 대-중소기업 권소시업이 12.9%로 가장 높고, 중소기업 단독 권소시업이 7.4%로 그 다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중소기업 단독 형태의 참여사업 대부분은 의료기자재 및 교육장비 등 기자재를 공급하는 차관사업에 해당한다.

< 그림 24 > 본 구매 컨소시엄 현황



<요약> 본 구매 사업 현황

- 본 구매 사업의 경우 교통, 에너지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많아 참여 건수나 사업금액 측면에서 F/S 사업, 컨설턴트 사업에 비하여 중소기업 참여 비중이 낮다.
- 분야별로는 보건, 교육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하며, 지역별로는 전체 현황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참여비율이 높다. 컨소시엄 현황은 사업 금액 기준으로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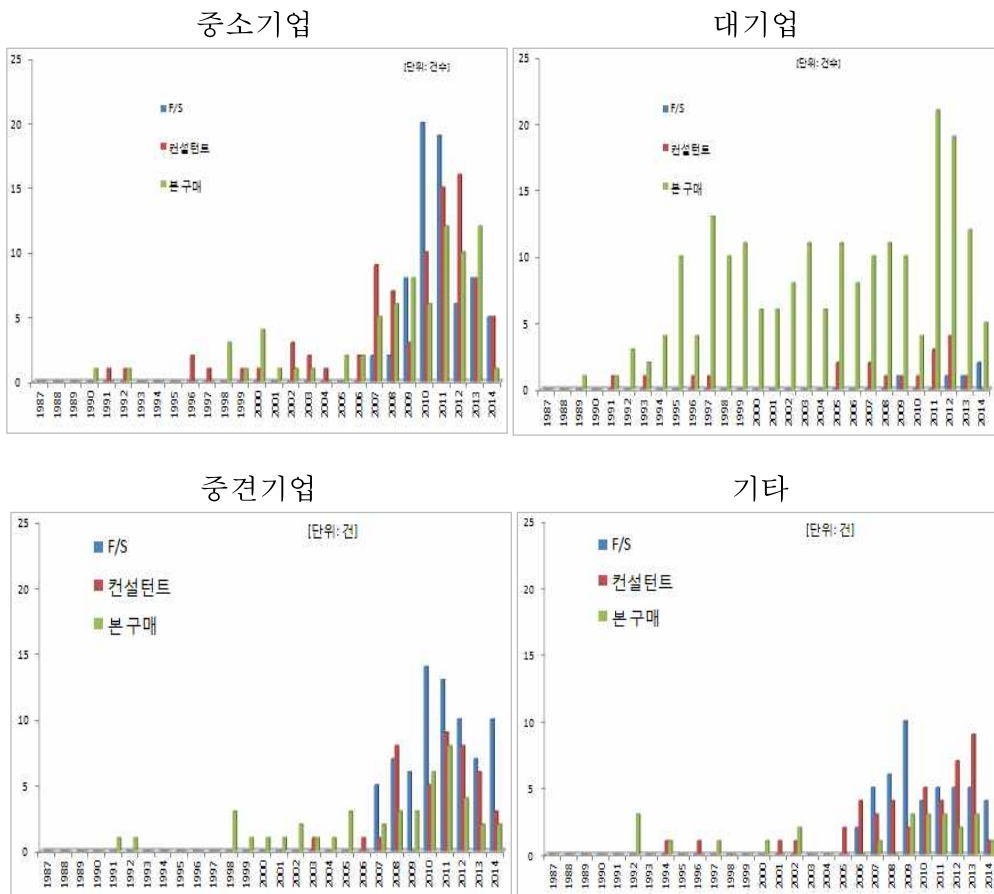
## 4. 참여유형별 사업 현황 비교

### (1)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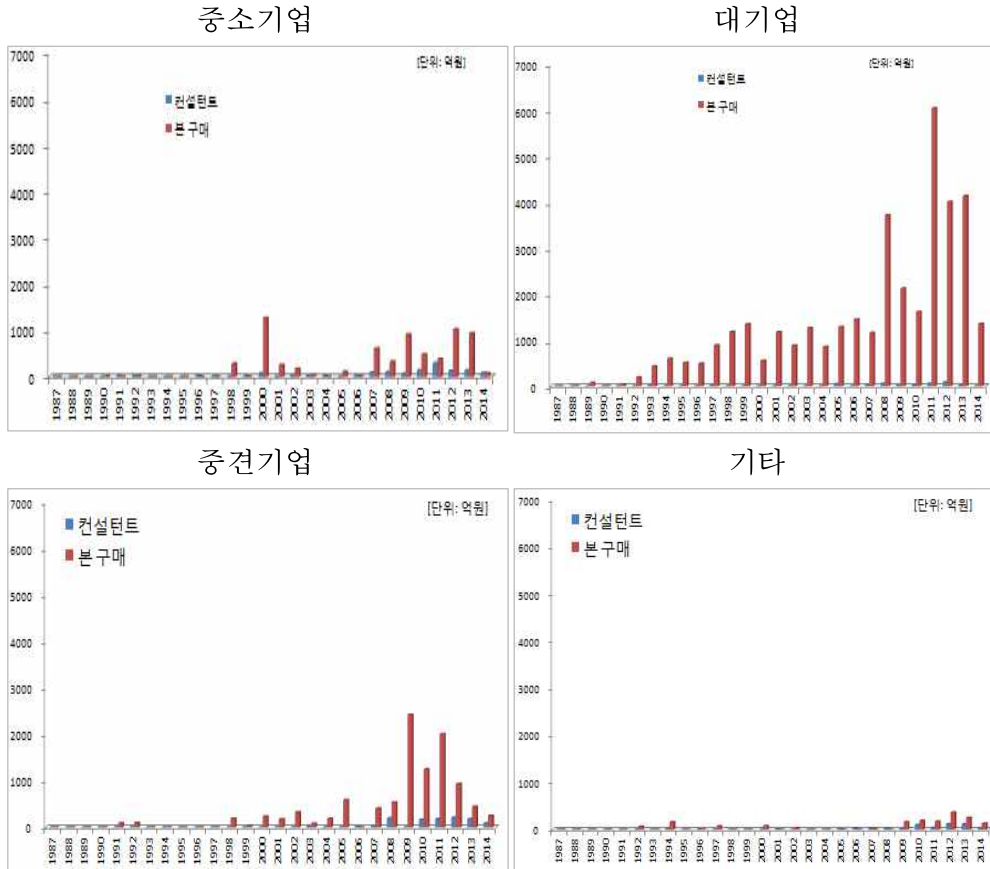
- 건수를 기준으로 2007년 이후 F/S, 컨설턴트, 본 구매 사업 모두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 금액 기준으로는 본 구매 사업의 경우 최근 대기업의 참여가 뚜렷이 확대된 데 반하여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참여 확대의 폭이 작았다.

< 그림 25 > 연도별, 참여유형별 현황

(건수 기준)



(금액 기준)



\* 계약연도 기준(87~14.9월), 본 구매 사업, 컨설턴트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지분금액 기준, F/S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지분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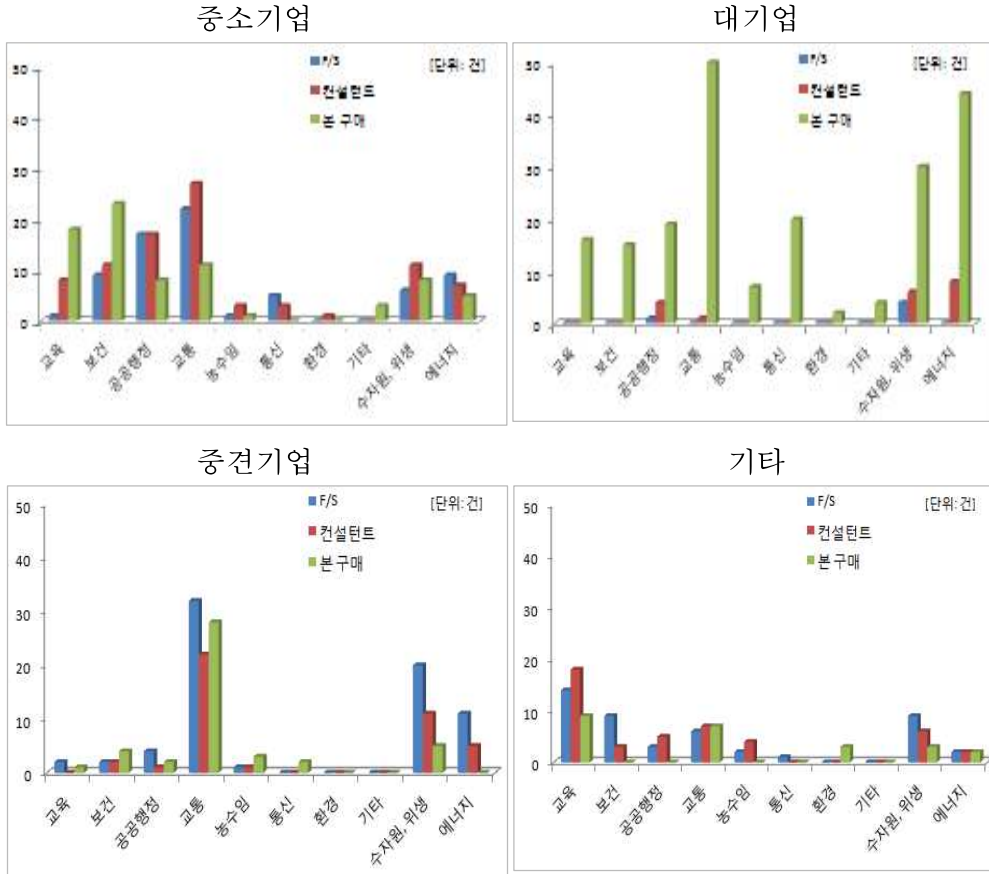
## (2) 분야별 비교

- 모든 참여유형에서 중소기업은 교육, 보건, 공공행정 분야에서 참여가 활발하며, 대기업은 교통, 에너지, 수자원/위생 등 대규모 사회 인프라 사업 비중이 높은 분야의 본 구매 사업에서 참여가 활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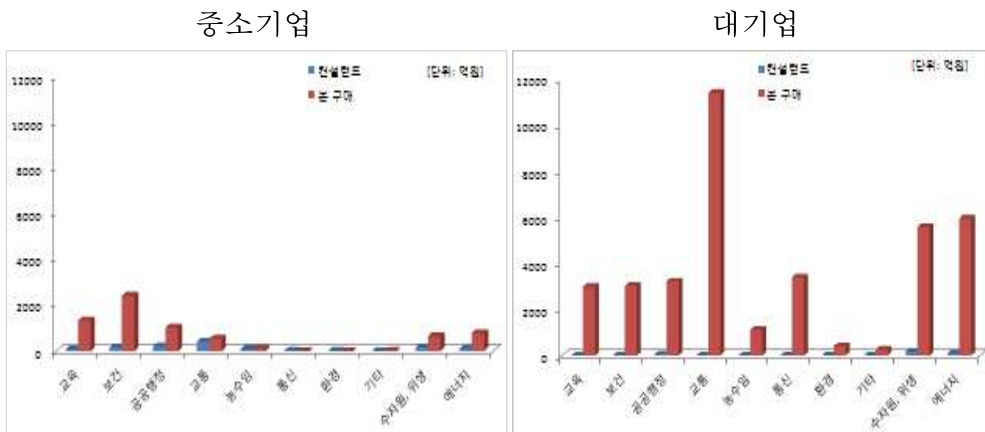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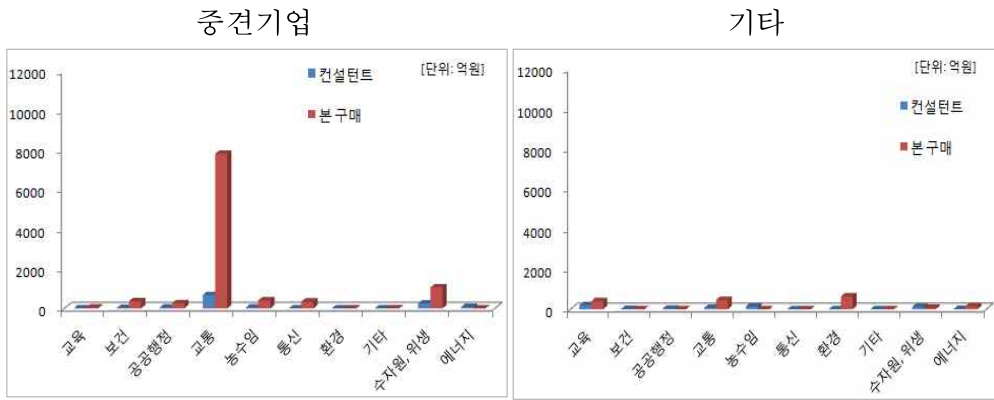
< 그림 26 > 분야별, 참여유형별 현황

(건수 기준)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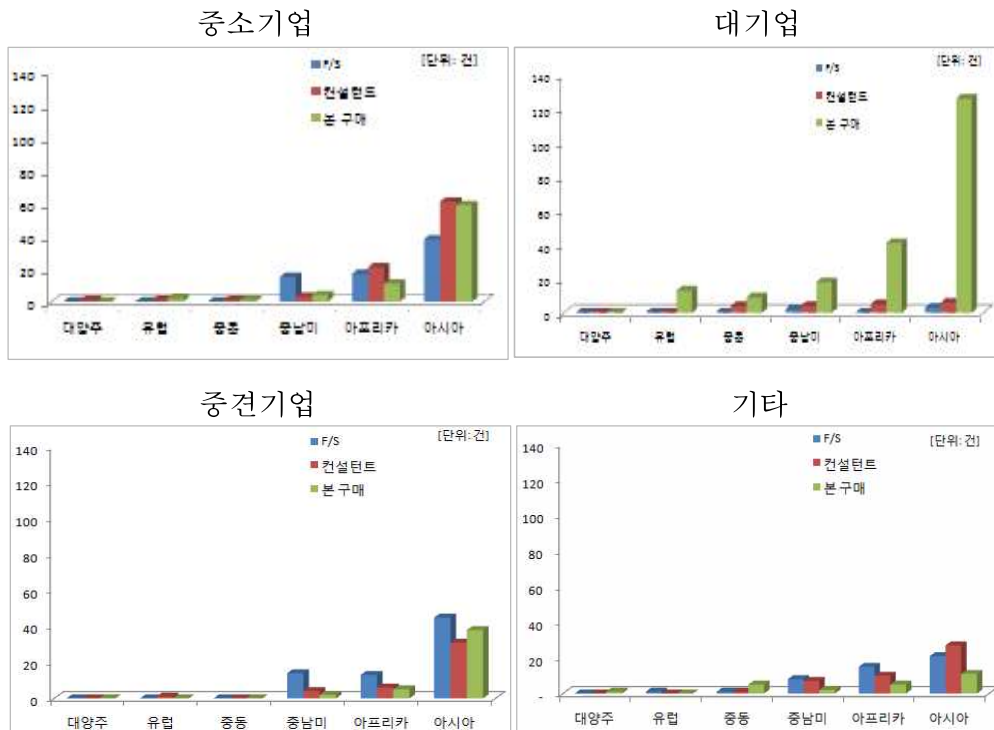
\* 계약연도 기준('87~'14.9월), 본 구매 사업, 컨설팅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지분금액 기준, F/S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지분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제외

### (3)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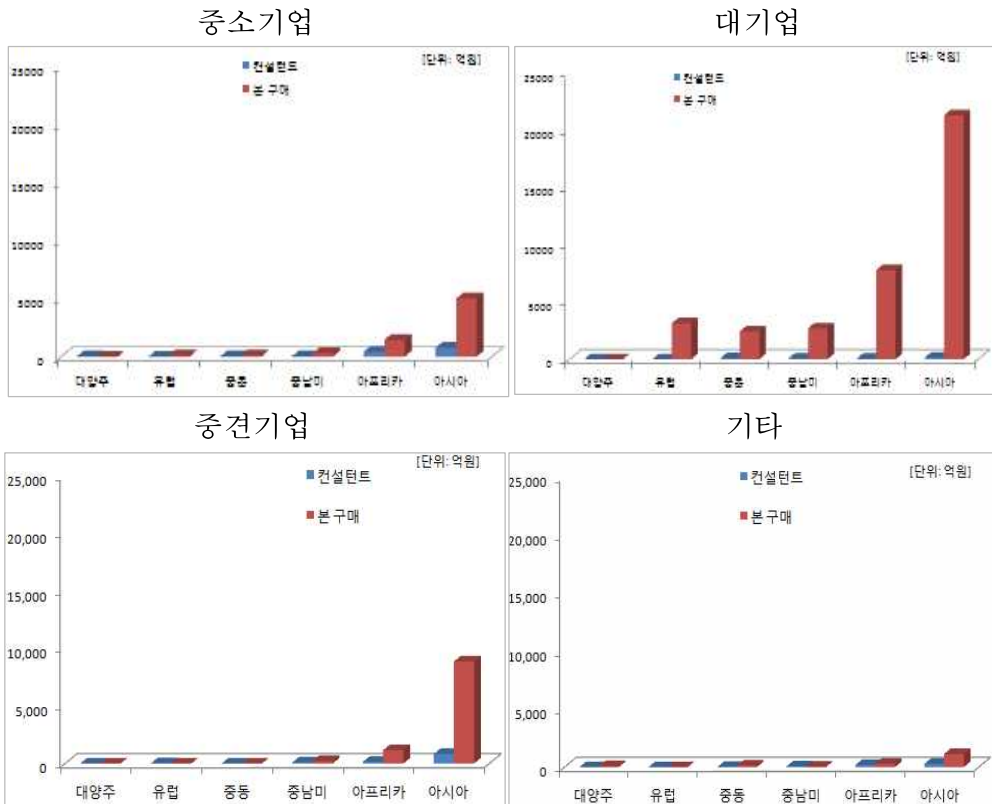
- 모든 참여유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참여 비중이 높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건수기준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컨설팅 사업의 참여 비중이 높다.

< 그림 27 > 지역별, 참여유형별 현황

(건수 기준)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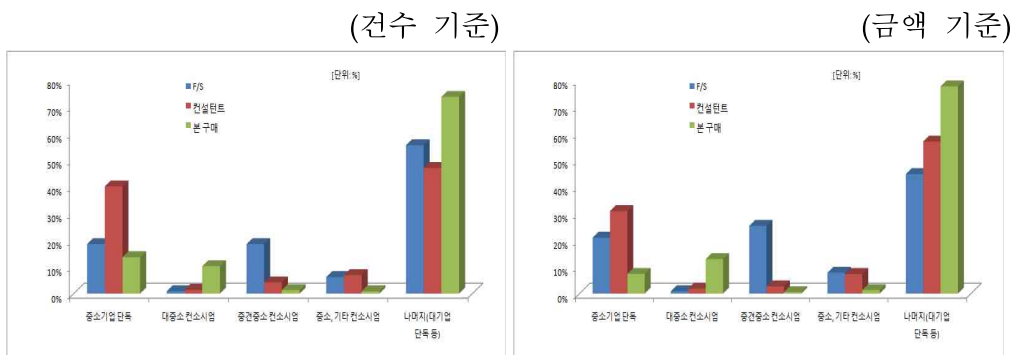


\* 계약연도 기준('87~'14.9월), 본 구매 사업, 컨설턴트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지분금액 기준, F/S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지분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제외

#### (4) 컨소시엄 비중 비교

- 중소기업 단독 컨소시엄은 컨설턴트 사업에서 가장 활발하고, 중견-중소컨소시엄은 F/S 사업에서 비중이 가장 높다.

< 그림 28 > 참여유형별 컨소시엄 비중 현황



\* 계약연도 기준('87~'14.9월), 해당 컨소시엄이 참여한 사업 금액 기준

### <요약> EDCF 참여유형별 사업 현황 비교

- 대기업은 교통, 에너지, 수자원/위생 등 대규모 사회 인프라 사업의 본 구매 사업에서 참여가 활발하며, 중소기업은 교육, 보건, 공공 행정 등 강점이 있는 분야의 모든 참여유형에서 사업 참여가 활발하다.
- 지역별로는 모든 참여유형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사업 비중이 높다. 중소기업 단독 컨소시엄은 컨설턴트 사업에서 가장 활발하고, 중견-중소컨소시엄은 F/S 사업에서 참여 비중이 가장 높다.

## IV. 중소기업 지원 제도 평가

### 1. 중소기업 지원 제도 개요

□ EDCF는 중소기업이 EDCF 사업 경험을 발판으로 국제기구, 신흥국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 국제조달시장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EDCF 참여유형별 중소기업 지원 제도 개선, 수원국 사업 환경 개선 등 3대 분야에서 '14년 9월 기준으로 12개 방안을 시행 중에 있으며, 1개 방안은 추진 예정에 있다.

#### ○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 **(EDCF 실무교육)** 조달청 및 해외건설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인터넷진흥원, 환경산업기술원,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6개 협회와 공동으로 EDCF/국제조달시장 입찰서 작성 등 실무교육을 반기 1회 실시하고 있다.
- **(EDCF 중소기업 도움마당)**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도움마당 홈페이지를 '13.1월에 개설하여 EDCF 해외사업 지원제도, 해외사업 정보, 행사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 **(프로젝트 컨설턴트 지원 - 추진 예정)** EDCF는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 국제개발은행 출신의 전문가를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고용하여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EDCF 참여유형별 중소기업 지원 제도

[ F/S 사업 ]

- (F/S 사업 입찰 평가 가점) EDCF가 발주하는 F/S 사업의 입찰평가 시,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 부여하는 제도를 '13.5월 이후 발주 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 (F/S 제안서 부담 경감) F/S 제안서의 중복 평가내용을 삭제하고, F/S 수행계획, 참여인력, 특수 제안사항 등 핵심사항 위주로 단순화 하여 제안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 (PM 역량 평가) F/S 사업의 입찰 평가가 기존에 관련서류(실적, 인력, 제안서)에 의한 서면 평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핵심인력에 대한 사업 이해도를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PM(Project Manager)의 사업 수행 능력 및 계획을 평가하는 PM 역량 평가(면접)를 실시하고 있다.

[ 본 구매 사업 ]

- (소액차관 범위 확대)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차관 사업 규모를 확대(3 → 5백만불)하고, 차관이자 면제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차관한도 : 총사업비용의 100% 가능(단, 5백만불 범위내)
- 금리 : 무이자 금리
- 상환(거치)기간 : 표준지원조건의 양허성수준(Concessional Level)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 차주 : 개발도상국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
- 구매방식 : 소액차관사업 참여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방식

- 교육·의료·환경·통신 분야의 기자재 구매에 적합한 소액차관제도는 '07년부터 시행하였으나, '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선진화 방안'에서 협의된 유·무상원조 역할분담(안)에 따라 1천만불 이하 소규모 사업은 KOICA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신규승인이 중단되었다. 이후 '11년말 EDCF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소액차관 사업을 EDCF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액차관 범위를 현행 3백만불에서 5백만불로 증액('13.6월 기금관리 운영규정 개정 완료)하게 되었다.
- **(분리구매 확대)** 건축물과 내부 기자재 등의 분리구매를 확대하는 등 구매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EDCF 구매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의 경우 개별 품목별(초음파진단기, X-Ray 등 중저가 의료장비) 또는 품목군별(수술실, 방사선, 외래 등으로 구분) 분리구매를 시행하고 있다.

#### ○ 수원국 사업 환경 개선

- **(컨설턴트/본 구매 예정사업 공개)** 수원국 발주 예정사업을 연초에 공시하여 중소기업이 사업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별지원전략(CPS) 주요 내용 및 수원국별 발주 예정 사업 목록 또한 공개하고 있다.
- **(수원국 기술자문 강화)** 수원국의 사업구상 및 발주준비 과정에 대한 EDCF의 기술자문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F/S 작성 및 사업발주 단계에서 EDCF가 기술전문가를 고용하고 재검토 (Review Mission)하도록 하여 사업발굴·설계·구매 등의 과정에서 수원국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컨소시엄 유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EDCF 분야의 세부 실행과제 ('14.3월 발표, 이하 실행과제) 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수행 경험(Track Record) 및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시 중견·중소기업의 참여 금액에 대해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인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현행금리의 50%를 적용(단,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비중은 20% 이상) 하도록 하고 있다.

- **(중견·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우대)** 실행과제 중 하나로 중견·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지닌 분야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우선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금리우대 등 차관조건을 대폭 우대\*하여 수원국의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경우 무이자,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금리의 50%를 적용하고 있다.

- **(ODA 적격사업 해외법인 대출)** 실행과제 중 하나로 상하수도, 지방전력망, 기후변화 대응 등 개도국 개발에 미치는 효과는 크나, 낮은 사업성, 정치적 위험 등으로 상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ODA 적격사업을 추진하는 외국법인(대기업의 출자법인을 제외한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민간협력차관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법인신설 및 증설에 따른 시설자금, 운영자금, 제작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금리를 1% 이내로 가능하게 하여 우대하고 있다.



## 2. 중소기업 지원 제도 분석

- (국내 중소기업 수출 지원제도) 기업 내부의 역량 및 자원 또는 해외시장 경험의 부족과 같은 태생적 한계로 인해 해외시장 개척 과정에서 구조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14년 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행 수출지원사업의 기본골격은 수출준비, 해외시장 진출, 해외시장 확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중앙정부 및 지원기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수출단계별로 살펴보면, 시장진출단계가 세부사업 수 86개, 지원금액 3,448억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준비단계는 세부사업 수 37개, 지원금액 1,658억원이며, 시장확대 단계는 세부사업 수 47개, 1,697억원이다. 수출단계별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2개 이상의 단계에 걸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수출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9 > 수출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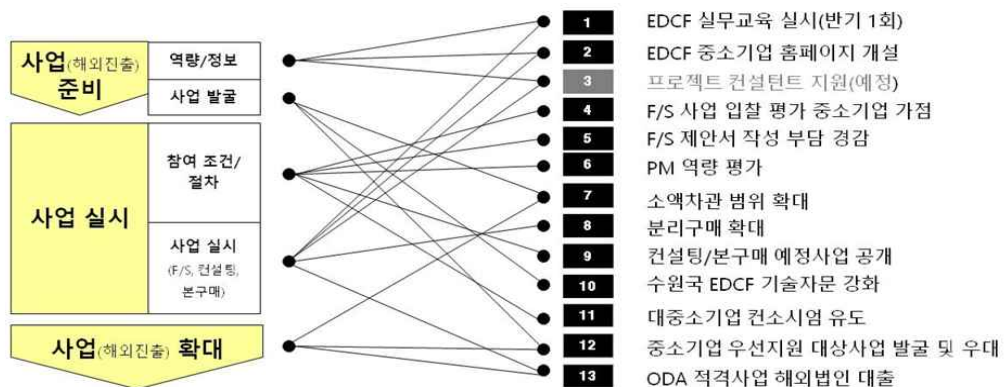
수출 단계	사업 예시	총 사업수	예산(백만원)
수출 준비	KOTRA(8), 중진공(6) 등	37	165,798
시장 진출	KOTRA(23), 무역협회(10) 등	86	344,800
시장 확대	KOTRA(14), 무역협회(8) 등	47	169,737



\* 출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방안(2014, 산업연구원)

- (EDCF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EDCF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수출 단계와 같이 3단계로 분류하면, 사업 준비 단계는 EDCF 실무교육 등 6건, 사업 실시 단계는 소액차관 확대, 분리구매 실시 등 10건이 있으며, 사업 확대 단계는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사업 발굴 등 3건으로 총 19건이 있다.

< 그림 30 > EDCF 중소기업 지원 제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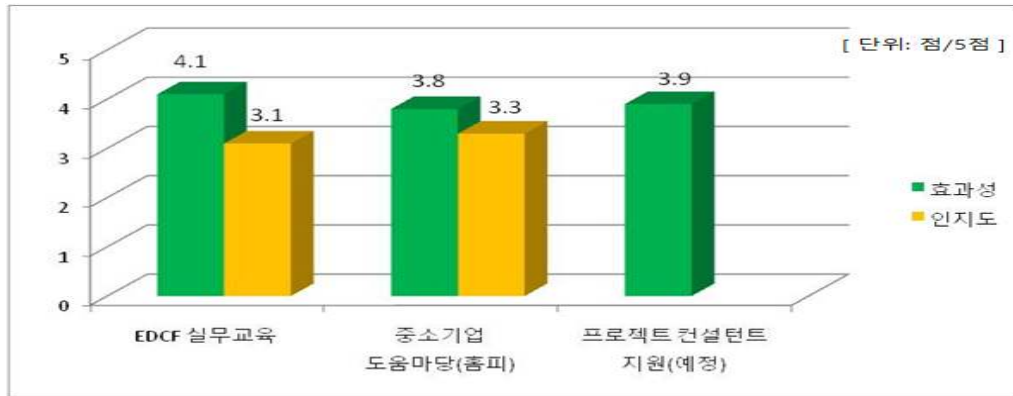


- 이처럼 EDCF는 사업의 참여조건 및 절차를 개선하거나 중소기업 참여 확대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EDCF 실무교육 등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3. 중소기업 지원 제도 참여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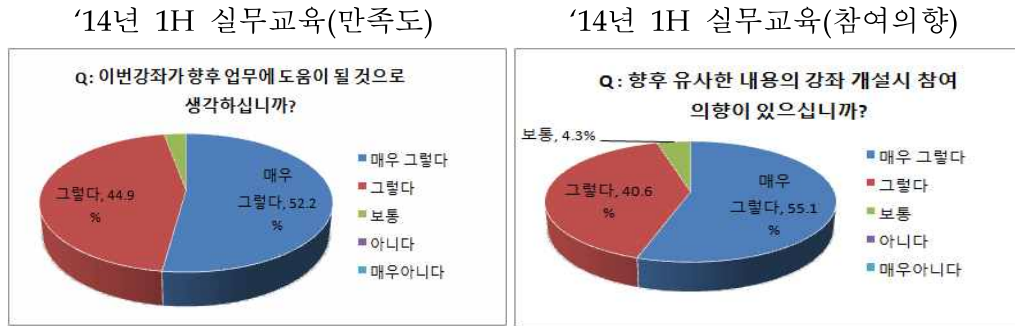
- 본 평가에서는 EDCF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 제도들의 실질적 효과성을 측정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EDCF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직원과 EDCF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효과성, 인지도 및 사업 프로세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본 평가에서는 EDCF 사업의 정량적 성과측정과 더불어 학습과 성장, 프로세스, 고객 등 정성적 성과 측면을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BSC(Balanced Scorecard) 이론을 활용하였으며, 재무, 고객, 학습과 성장, 프로세스 측면의 4가지 관점에서 각 설문을 설계하였다.
- 특히,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과성 및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프로세스 측면에서의 설문을 설계하여 조사하였으며 참여유형별로 각 사업 프로세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제도 평가
  -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설문 대상자들의 평가는 아래 <그림 31>과 같다.

< 그림 31 > 중소기업 역량 강화 제도 평가



- (EDCF 실무 교육) 설문결과 효과성은 평균 4.1점, 인지도는 평균 3.1점으로 효과성은 높은 데 반해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EDCF는 반기별로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서류 작성·기관별 지원제도 설명·업무 노하우 등 맞춤형 실무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 특히 최근 '14.5월에 실시된 EDCF 실무교육은 국내 80여개 기업에서 13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하였으며, 아래 <그림 32>와 같이 참석자들의 만족도 및 향후 참여 의향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 EDCF에서는 작년 실무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산업군 별 특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그림 32 > '14년 상반기 실무교육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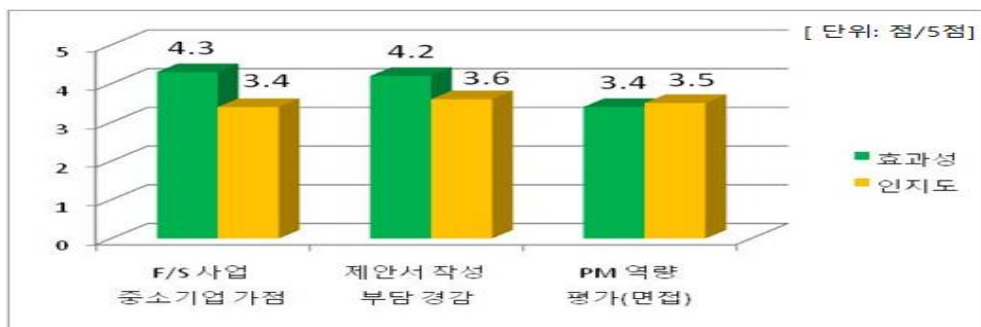
- (프로젝트 컨설턴트 지원) 설문 결과 효과성은 평균 3.9점으로 평가되었다.
  - EDCF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개발은행 출신의 전문가를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고용하여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프로젝트 컨설턴트 제공은 EDCF 사업과 관련하여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나 EDCF 사업 수행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중소기업 지원마당 홈페이지) 설문결과 효과성은 평균 3.8점, 인지도는 3.3점으로, 효과성은 높는데 반해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 EDCF는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 도움마당' 페이지를 개설하고 중소기업의 각종 지원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 중소기업 지원 제도, 사업 현황, 참여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을만한 내용이 흩어져 있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여 향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DCF 참여유형별 중소기업 지원 제도 평가

[ F/S 사업 ]

- F/S 사업 관련 제도에 대한 참여자의 평가 결과는 아래 <그림 33>과 같다.

< 그림 33 > F/S 제도개선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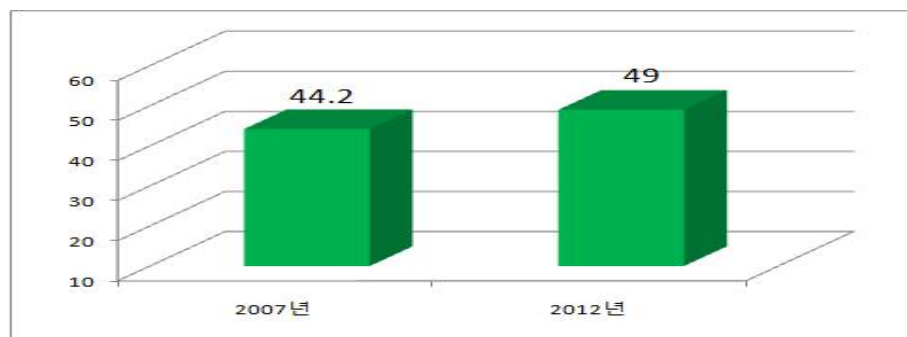


- (F/S 사업 중소기업 가점제도) 설문결과 효과성은 평균 4.3점, 인지도는 평균 3.4점으로 응답하여 효과성은 높게 평가되었으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F/S 예정사업의 경우 반기 1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개하고 있는데, '14년 상반기 사업은 약 5,291건, '14년 하반기 사업은 2,922건('14.9.17 기준)의 높은 조회건수를 보이는 등 F/S 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았다. 따라서 향후에 실무교육 등을 통해 F/S 사업의 중소기업 가점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한다면, 중소기업의 참여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단순히 평가기준 등을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력유치, 제안서 작성 노하우 습득, 해외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의 병행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PM 역량 평가 면접) PM(Project Manager)의 사업수행 능력 및 계획을 평가하는 PM 역량 평가(면접)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3.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 '12년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평가 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에 49점으로 평가되어, 2007년의 44.2점보다 다소 나아졌으나, 여전히 50점에 못 미치는 미흡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중장기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그림 34 >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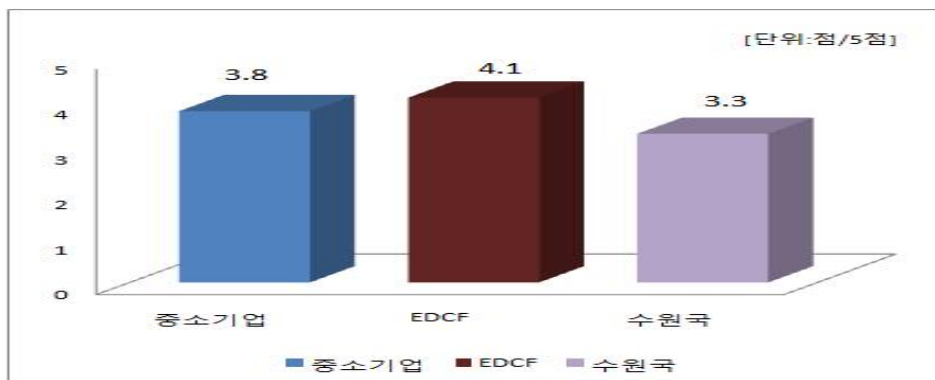
\* 출처: 이영주 외 (KIET 연구보고서, 2012.12)

\* 글로벌 역량은 수출 등 글로벌 사업을 성공적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24개 평가지표를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종합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낮은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PM 역량평가가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느껴 이에 대한 효과성을 낮게 평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 그러나 중소기업도 PM 역량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PM 역량평가의 본 의도는 실적이 중견·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정성적인 측면에서 잠재적인 역량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F/S 사업에의 중소기업 참여를 높이는 데 있다.

- 따라서 향후에는 실무교육 등을 통해 PM 역량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PM 역량 제고를 위해 EDCF 사업정보 및 해외발주기관 사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 대상 입찰관련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F/S 사업의 프로세스 만족도 평가) 중소기업 담당자는 EDCF 담당자와 수원국에 대해, EDCF 담당자는 중소기업과 수원국에 대해 상호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EDCF 담당자 공통적으로 수원국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그림 35 > F/S 사업 프로세스 만족도



- 특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의 부재, 사업 경험 부족, 응답을 저조, 의사결정 지연, 사전 협의 미흡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EDCF는 F/S 발주 전 해당 프로젝트 개념을 확정하기 위한 Project Concept Paper(PCP)\* Mission을 본격적으로 시행('13년 8건)하고 있다.
- 그 동안 F/S 발주 이전에 PCP 절차 없이 F/S 수행업체가 용역을 수행한 결과, EDCF의 정책 방향이 반영되지 못하고 수원국의 요구 사항만 반영되거나 실제 심사 시에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등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상존해왔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EDCF는 '13년말 'PCP 작성지침 및 사례'를 작성하는 등 효과적인 F/S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PCP(Project Concept Paper) 시행 배경 및 개요

F/S 사업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거나 수행방법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F/S 대상사업의 사업범위 및 구성요소, F/S 수행 용역업체 과업범위 등에 혼선이 발생하여 F/S 수행과정에서 혼란·지연을 초래하고 최종성과물에 대한 수원국의 불만 야기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또한, EDCF의 참여 없이 컨설턴트 단독으로 협의시 수원국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처하기 곤란하며, 컨설턴트가 F/S 수행 중 본 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마케팅의 기회로 활용하는 폐해도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F/S 사업의 진행에 앞서 수원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 개념(Concept)을 확정하고, 확정된 프로젝트 개념에 의거하여 F/S 수행방법 및 과업범위를 정하여 F/S 용역업체 앞 F/S 사업을 발주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PCP Mission은 ① 해당 지역에 다수의 유사 사업 전례, ② 타 기관이 진행한 기 F/S 보고서 ③ 해당 F/S 사업 관련 예비 타당성 사업이 진행되었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한다.

1. Project Concept 등의 부재로 사업의 실체가 불확실한 사업
2. 신규 지원국가 및 신생분야 지원 사업
3. 과거 F/S 수행 중 문제발생 국가 또는 기관이 지원 요청한 사업
4. 다양한 사업 분야가 혼재되고 여러 기관이 연계된 사업

PCP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크게 ① 기본 사업 개념, ② 기술적인 분야, ③ EDCF 원조 효과성, 지속가능성 및 ④ 수원국 행정 절차 조사 등 기타 분야이다.

○ 이 외에도 F/S 완료 후 컨설턴트, 본 구매 사업으로 진행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그러나, EDCF 사업 절차상 수원국의 결정이나 설계 등에 필수적인 시간이 필요하며, 공여국 및 수원국 내 각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사업기간에 대해 EDCF가 통제하기에는 어려운 특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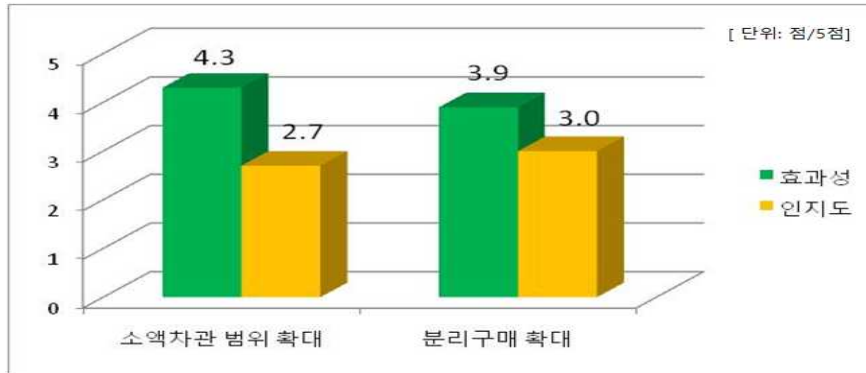
## [ 컨설턴트 사업 ]

- 현재 컨설턴트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별도의 제도 개선안은 없는 상황이며, 이는 금액과 건수 기준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충분히 활발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컨설턴트 사업의 프로세스)** 설문 결과 사업 진행 중 계약 변경 및 추가 시 승인까지 소요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수원국 정부가 EDCF 입찰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이는 컨설턴트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로 중소기업만 관련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역량이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문제는 더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편, 컨설턴트 사업과 관련된 EDCF 사업 담당자의 의견으로 중소기업의 능력 및 사업수행 의지 확인, 신용 리스크, 책임이행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컨설턴트 사업의 경우 대규모 본 구매사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참여 중소기업의 역량과 의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 [ 본 구매 사업 ]

- 본 구매 사업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평가는 아래 <그림 36>과 같다.

< 그림 36 > 본 구매 제도 평가



- (소액차관 범위확대(3 → 5백만원)) 효과성 평균은 4.3점, 인지도 평균은 2.7점으로 평가되었다.
  -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소액차관사업 제도의 시행은 중소기업 사업 참여 확대에 유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인지도의 경우 아래 <표 15> 소액차관 사업 현황(14. 9월)과 같이 아직 소액차관 사업수나 금액이 많지 않고 다른 차관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높지 않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15 > EDCF 소액 차관사업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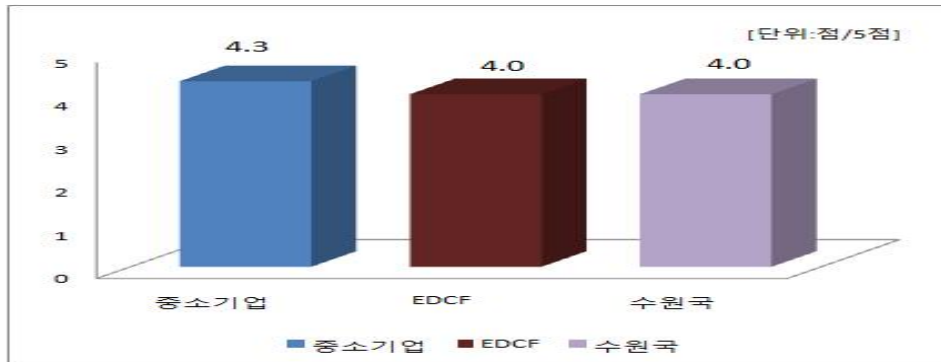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승인연도	사업명	승인액	분야
라오스	2007	SEA게임 주경기장 연결도로 개선사업	3.00	교통
	2009	5개공항 소방설비 공급사업	2.99	기타
	2009	비엔티안시 소방설비 공급사업	2.99	기타
	2009	109 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2.99	보건
베트남	2008	지아라이성 플레이쿠시 종합병원 개선사업	3.00	보건
	2008	탕화성 하쭙읍 종합병원 개선사업	3.00	보건
	2008	탕화성 탕화시 직업기술대학 개선사업	3.00	교육
	2009	꽝빈성 직업전문대학 개선사업	2.96	교육
	2009	하띤성 중등직업학교 개선사업	2.98	교육
	2009	지아라이성 아운파 중등직업 개선사업	2.96	교육
	2009	까마우성 종합병원 개선사업	2.96	보건
<b>합계(11)</b>			<b>32.83</b>	

- 소액차관은 수원국에게는 금리 우대, 절차 간소화 등 장점이 있고, 일반적인 EDCF 사업기간(18개월)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아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사업수행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수원국 및 중소기업의 인지도 제고를 통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이와 관련하여, EDCF는 '14년 9월 개발도상국 정부가 특정 부문 (sector)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다수의 소액차관사업을 묶어 단일 섹터론으로 승인받는 '섹터개발차관' 도입하기로 하였다. '섹터개발 차관'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소진방식으로 사용된다. 또한 개도국 정부의 오너십을 존중하여 수원국이 개별사업을 선정 하기 때문에 수원국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의 규모나 추진 속도 면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분리구매 확대)** 효과성은 평균 3.9점, 인지도는 평균 3.0점으로 평가 되었다.
  - 분리구매제도는 시공업체가 모든 시설을 책임지는 기존 일괄수주 방식을 개선하여, 건축물과 내부 기자재 등을 분리하여 구매 (breakout)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자재 공급을 담당 하여 비교적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장점 때문에 효과 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 의료분야의 경우 개별 품목별(초음파진단기, X-Ray 등 중저가 의료장비) 또는 품목군별(수술실, 방사선, 외래 등으로 구분) 분리구매
- **(본 구매 사업의 프로세스 만족도)** 참여 중소기업은 EDCF 담당자와 수원국에 대해, EDCF 담당자는 중소기업과 수원국에 대해 상호 평가 하였다. 그 결과 수원국 및 EDCF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점, 중소기업에 대한 만족도는 4.3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 그림 37 > 본 구매 사업 프로세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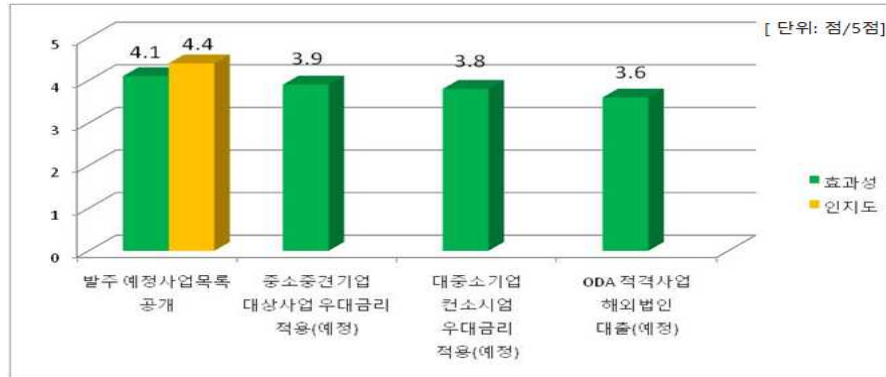
- 본 구매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며 (중소기업 참여사업의 평균 금액 89.7억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단계로 모든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상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설문조사 대상은 주로 소액 기자재 차관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직원으로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사업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한편, 설문조사 시 EDCF 담당자는 본 구매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와 관련하여 수원국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경우 사업안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사업 운영측면에서 자금회수 지연, 환율변동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현지조사 시 라오스 재무부 담당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정확한 평가를 통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EDCF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는 추후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라오스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의 다른 국가의 진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수원국에 대한 중소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본 구매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또한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원국의 만족도가 하락하여 지속적인 사업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기자재 공급사업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재가 소모되므로 유지보수 등 사후적인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특히 사후관리 지원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사후관리는 사업시작 단계에서 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KOICA 등 무상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 전수, 장비 사용 교육 등 수원국 자체 운영능력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수원국 사업 환경 개선

- 수원국 사업 환경 개선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아래 <그림 38>과 같다.

< 그림 38 > 수원국 환경 개선 제도 평가



- **(EDCF 발주 예정사업 공개)**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는 평균 4.1점, 효과성은 4.4점으로 상당히 높았다.
  - '14년 EDCF 사업 입찰공고의 조회건수를 살펴보면 적게는 907건, 많게는 9,273건('14.9.22 기준)에 이르고 있어 EDCF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사업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발주 예정사업의 공개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소중견기업 대상사업 우대금리 적용)** 효과성에 대해 평균 3.9점으로 평가되었다.
  - 현지조사 시 라오스 정부의 설문 결과에서도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EDCF가 시행중인 가장 효과성이 높은 제도로서 중소기업 소액차관 규모 확대(3백만불 → 5백만불)에 이어 수원국에 무이자 등 우대금리 적용을 2 순위로 뽑았다.
  - 중견·중소기업 대상 사업지원은 '14.3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EDCF 분야 세부 실행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비중과 중점분야 관련 목표가 결정되어 '14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우대 금리 적용) 효과성에 대해 평균 3.8점으로 평가하였다.
  - 특히 대형사업 비중이 높은 본 구매 사업의 경우 본 제도 시행을 통해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면 중소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 의견: 다른 기관과 협력 채널) 라오스 한국 대사관과의 인터뷰 결과 EDCF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교민과 연계하는 경우, 부패가 심한 개도국 정부의 특성상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수원국 현지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이러한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므로 수원국 현지에서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하여 EDCF에서는 현재 '13. 9월에 시행한 ODA 협의 채널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기관과 재외공관 간의 정보공유 미흡으로 인해 수원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ODA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 4. MDB 및 선진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시사점

### (1) 다자간 개발은행(MDB)

- (지원사례) MDB의 경우 주로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이 현대화를 통해 해당 국가의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세계은행(WB: World Bank) 산하 기관 중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중소기업 분야에 2010년 기준 5,279백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SME(Small & Medium Enterprises) Initiative를 운영하여 투자환경(Investment Climate),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시장 접근성(Access to Markets), 재무 접근성(Access to Finance)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미주개발은행(IDB) 산하의 미주투자공사(IIC)는 중남미 각국의 민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통한 역내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어 2011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융자 승인 71건, 4억 6,500만달러 규모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IIC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용자를 제공하고 기술협력 프로그램(Technical Assistance)를 지원하기도 하며 중남미 중소기업의 경영을 진단하고 결과를 민간 은행에 제공해 대출사업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FINPYME'를 운영하고 있다.
-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아시아 태평양권 국가의 중소기업(MSMEs: Micro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에 대해 정부 정책 혁신, 자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몰디브 국가의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였는데 아르메니아의 경우 정책 혁신, 자문 지원, 역량강화, 여성기업인을 위해 약 4천만 달러 규모의 중기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 은행에 1천만달러, 우즈베키스탄에 6백만 달러 자금을 지원하였다.

- (시사점) MDB의 경우 다수의 재원공여국과 개발도상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기구의 특성으로 특정 재원 공여국의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 미주개발은행 산하의 미주투자공사, 아시아개발은행은 모두 지역 내 다수 수원국의 중소기업투자 환경 조성, 역량 강화, 기술협력 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 이처럼 다자간 금융기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수원국 경제개발에 필요한 양자 간 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 수주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EDCF의 지원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 (2) 주요 선진국 사례

- (미국) 금융위기로 소극적이었던 통상정책이 2010년부터 적극적으로 변화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연두교서 (State of the Union)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강화를 강조하고, 종합 수출지원 정책으로 국가수출확대정책(National Export Initiative) 신설, 중소기업과 농민의 수출지원을 통해 2015년까지 수출을 2배로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대외정책연구원, 2011. 12월)
  - 이러한 기조에 따라 미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인허가절차나 융자절차의 간소화, 지원대상 기업 확대,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의 비재정정책이나 수출신용보증 확대 등의 간접 재정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13.2월)
- (대만) 대만정부는 2012년 '중소기업 백서'에서 신시장 발굴 및 해외 투자 환경조성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로 인해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대출시 신용보증 지원 확대하고 있다.

- 전통적으로 정부지원이 아닌 시행착오(Learning by doing)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금융 세제상의 우대는 거의 없으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비 재정지원(신시장 개발, 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13.2월)

□ (일본) 2011년 6월 일본 경제산업성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vestment)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를 일으키고자 ① 해외 시장 정보제공, ② 마케팅 지원, ③ 해외시장 진출 위한 인적자원 개발, ④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 ⑤ 자금 대출 컨설팅 확대 및 재정 지원 접근 단계 간소화 등 5대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발표하였다.

- 일본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을 무상원조에 적극 활용하여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개도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에 모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본정부는 2013년 무상원조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추진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ODA 예산 20억엔을 사용하였다.

\* 폐기물을 재료로 한 퇴비제조기, 수처리 장치, 휠체어와 같은 환경·복지 등 8개 분야 제품의 판로를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고 시범사업으로 1~2년간 현지 정부기관 등에서 일본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장기 수주로 연결시켜 나간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 표 16 > 일본의 무상원조 조달시장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제품사례

분야	제품
환경·에너지·폐기물 처리	폐기물을 활용한 퇴비제조기, 절전형 수력 발전기, 환경배려형 화장실, 우량감시시스템
물 정화·처리	태양광발전기 수처리 장치, 수질측정기, 정수기, 지하수 오염 정화제
직업훈련·산업육성	연삭반, 공작용기기, 작업공구, 자동조작기기
복지	휠체어, 리허빌리테이션용품, 간병기자재
농업	수리펌프, 수확용 기계, 정미기, IT를 활용한 농산물 유통시스템
의료보건	X레이 진단장치, 치과기기, 백신 등 정온 수송용기
교육	교재, 실험기구 등
방재·재해대책	재해방지장치, 가설용 조명기구, 재해구조용 기자재

- 이 과정에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외무성,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하여 공모를 통해 20개 사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제품의 활용가능성, 현지적합성, 보급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JICA는 현지에서 사용할 일본 제품 및 기자재를 매입하고, 제안 기업에 대여하였으며 사업기간 종료 후 상대국 정부에 증여하였다.

- 이처럼 일본의 중소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제품 판매를 위해 정부가 무상원조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은, 해외사업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상대국에서 인맥을 구축하고 독자적으로 판로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이후 해외 주요국 모두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무상원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 수출 확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무상원조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전략으로써 유상원조 기금인 EDCF가 참고하여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미국과 대만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해외 투자환경 조성, 정보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으나, ODA를 활용한 자국의 중소기업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일본 JICA의 경우 외무성 등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유상원조가 아닌 무상원조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EDCF의 경우 일본의 사례와 같이 무상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해당 사례를 참고하여 무상원조와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V. 시사점 및 제언사항

### 1. 시사점

- 중소기업의 EDCF 참여 현황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비중이 높은 EDCF 사업의 특성과 개도국의 대기업 선호 성향, 사업수행 경험이나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여건에 따라 참여유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EDCF는 ‘참여유형별 지원제도 개선’, ‘중소기업 역량강화’, ‘수원국 환경개선’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본 평가를 통해 얻어진 분석 내용을 상기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EDCF 참여유형별 지원제도

#### [F/S 사업]

- F/S 사업은 사업 평균 금액은 작지만, 컨설턴트, 본 구매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과업상의 특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분야별, 지역별, 컨소시엄 측면에서 모두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하다.
- 중소기업의 F/S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시행중인 ‘중소기업 가점 제도’, ‘제안서 작성부담 경감’은 설문조사 결과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PM 역량평가 제도’의 경우 효과성과 인지도가 상기 2개 제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PM 역량평가의 본래 의도는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실적이 중견·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

지는 중소기업이, 정성적인 측면에서 잠재적인 역량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F/S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높이는 데 있으므로 앞으로는 실무교육 등을 통해 본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중소기업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F/S 사업 수행시 수원국에 대한 만족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업무 수행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및 경험의 부족, 의사결정 지연과 사전 협의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EDCF에서 시행 중인 Project Concept Paper(PCP)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컨설턴트 사업]

- 컨설턴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강점을 가지고 있어 참여유형 중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다.
- 현재 중소기업의 참여가 충분히 활발한 상황으로 컨설턴트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별도의 제도 개선방안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 [본 구매 사업]

- 본 구매 사업은 교통, 에너지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많아 참여 건수나 사업규모 측면에서 F/S 사업, 컨설턴트 사업에 비하여 중소기업 참여 비중이 낮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가 많은 편이다.
- 본 구매 사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중인 '소액차관 범위확대' (3 → 5백만불), '분리구매 확대'의 경우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효과성은 높았으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본 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시 수원국 측에서는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는 바 수원국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제도

-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EDCF 실무교육'과 '중소기업 홈페이지', 예정 중인 '프로젝트 컨설턴트 지원' 제도는 모두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에도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EDCF 실무교육'의 경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향후 추가참여 의향이 긍정적이므로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EDCF의 중소기업 도움마당 홈페이지'는 중소기업의 각종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 지원 제도, 사업 현황, 참여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을만한 내용이 흩어져 있거나 다소 부족하므로 향후 EDCF 홈페이지 개편 시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 컨설턴트 지원 제도' 역시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동 제도 추진 시 수원국에 체류하여 현지 정보가 많은 컨설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 수원국 사업 환경 개선 지원제도

- 수원국 발주 예정사업을 연초에 공시하여 중소기업이 사업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효과성과 인지도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된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금리 우대 제도 또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채널 구축과 중소기업 유망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사업 발굴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시행중인 'ODA 적격사업 해외법인 대출 제도'를 활용하여 ODA 적격사업을 추진하는 현지 중소기업 법인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사업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설문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시공능력, 책임 이행 측면에서 사업 리스크가 있고, 사후 관리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 바, 수원국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이 참여한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부족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 2. 제언사항

-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을 제언하기에 앞서 고려할 EDCF 운용 특성 및 한계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EDCF 제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 ODA 정책 기조의 틀 내에서 추진되며, 컨설턴트, 본 구매 사업의 경우 수행 업체를 선정하는 주체는 수원국이므로 EDCF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 ODA 사업의 본래 목적은 개발 효과성을 제고하여 수원국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 효과만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강화 등 향후 효과성 및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방안들은 개선사항에는 우선 제외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 컨소시엄 확대, ODA 적격사업 해외법인 대출, 프로젝트 컨설턴트 지원 등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시행될 예정인 제도는 현 시점에서 개선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시행 후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제언사항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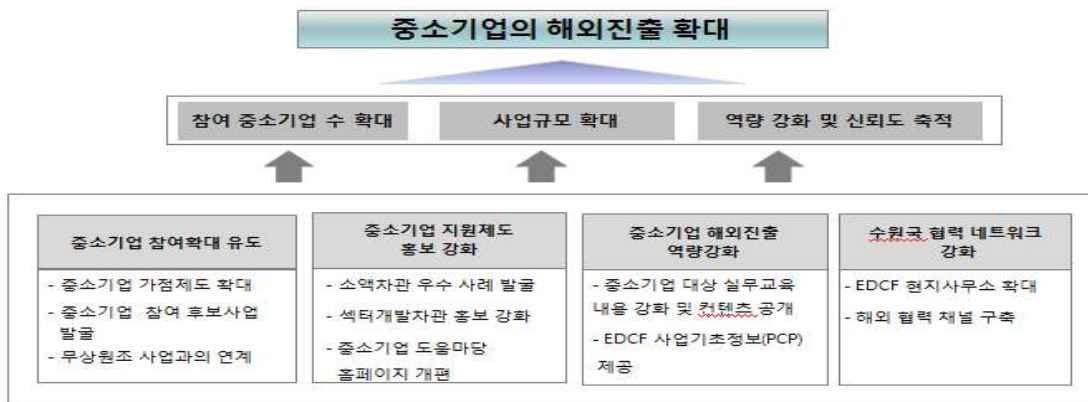
## (1) 기본방향

- EDCF는 개도국의 원조 효과성과 만족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EDCF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향후 MDB 등 국제조달시장에 진출하고 나아가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참여확대 유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홍보 강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역량강화와 수원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간접적인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EDCF 사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제기구, 신흥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를 축적하고, 국제조달시장 참여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 (2)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제언

- 1) 중소기업 참여확대 유도, 2) 중소기업 지원제도 홍보 강화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4) 수원국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4개 영역에서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그림 39 >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안



## [중소기업 참여확대 유도]

### □ 사업실시, 사후관리 컨설턴트 고용 시 중소기업 가점제도 실시

- 사업준비 단계에서 F/S 수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실시, 사후관리 단계에서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EDCF 입장에서는 해당 컨설턴트의 과업이 F/S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컨설턴트 수행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사업실시, 사후관리 단계에서 컨설턴트로서 과업 수행을 통해 본 사업 단계에서의 간접적인 사업 참여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 □ 중소기업의 ODA 사업 참여수요 파악을 통한 후보사업의 발굴

- 실무교육, 홈페이지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ODA 사업 진출 수요를 파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ODA 사업에 적합한 유망 분야나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 이후 수원국과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아국 중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분야에 대해 각 수원국별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후보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사업 발굴을 통해 보건, 교육 분야 외 전기통신, ICT,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상원조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

- KOICA의 무상원조 사업에는 기자재 공급 사업 등 중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소액의 사업이 많으므로, 기 추진한 무상 원조사업 중 수원국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유상원조로 지원을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 후속사업을 EDCF가 추진하는 연계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홍보 강화]

□ 소액차관 우수지원 사례 발굴을 통한 홍보 강화

- 수원국에 금리를 우대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소액차관 제도는 '07년부터 시행하였지만 현재까지 시행된 사업의 수나 규모가 작고 참여 대상인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향후에는 소액차관 사업을 통해 해외진출에 성공한 중소기업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EDCF 실무교육 등을 통해 이를 소개하여 참여 후보자인 중소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이와 더불어 정책 협의회 시에도 소액차관의 장점과 우수 지원 사례를 수원국 담당자에게 소개하여 소액차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신설 제도인 섹터개발차관제도 홍보 강화

- 최근 도입된 '섹터개발차관' 또한 향후 중소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많은 사업이므로 개도국의 오너십을 존중하는 섹터개발차관의 의의를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수원국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해 수원국이 지원 후보사업 선정 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분야의 소액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신설된 섹터개발차관 제도의 세부적인 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EDCF 설명회 등을 통해 해당 제도를 소개하여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 EDCF의 중소기업 도움마당 홈페이지 개편

-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진출 정보 제공을 위해 개설한 EDCF 중소기업 도움마당 홈페이지에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사업 현황 등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을만한 내용이 흩어져 있거나 부족한 실정이다.
-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제도, 사업 및 입찰정보, FAQ, 성공 사례 등 EDCF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 □ 중소기업 대상 실무교육 내용 강화 및 콘텐츠 공개

-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EDCF의 실무교육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근 다자개발은행(MDB) 교육, 타 기관 연계 교육을 추진한 것처럼,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산업 부문별 해외시장 진출 전략, EDCF 사업 단계별 심화 교육 등 실무교육 내용을 보강하고 참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자료 등 실무 콘텐츠를 공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EDCF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 □ 중소기업 앞 EDCF 사업기초정보(PCP) 제공

- 중소기업의 경우 EDCF의 F/S 사업이나 컨설턴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지 정보 부족 및 수원국과의 네트워크 미비로 사업초기 단계에 수원국 정부가 원하는 정확한 사업추진 방향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 EDCF는 지원 후보사업의 개념이 불명확하거나, 쟁점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확정하는 Project Concept Paper (PCP) Mission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초기단계의 사업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이렇게 확보된 사업기초정보(PCP)는 입찰 설명회 등을 통해 F/S, 컨설턴트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직접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PCP를 활용하여 F/S, 컨설턴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PCP의 유용성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사업 수행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수원국 협력 네트워크 강화]

### □ EDCF 현지 사무소 확대

-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수원국 현지정보가 부족하며 수원국의 부패 가능성 등 수원국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EDCF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 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EDCF는 수원국 현지 사무소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13년 9월에 시행한 ODA 협의채널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축한 재외공관 및 국내 ODA 기관과의 협의채널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해외 협력 채널 구축

- EDCF 현지사무소가 없는 개도국의 경우 수원국 내에서 중소기업의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KOTRA, KOICA 등의 현지사무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별첨 1> 국내조사 설문지

**중소기업 참여 사업 평가 설문지**  
(참여 중소기업 담당자 대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이 발주한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차관사업 평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한국기업경영학회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입니다.

본 설문은 EDCF 사업에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소중한 의견 및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의 자료는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누설되거나 유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신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와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책임연구원, 김영준 고려대학교 교수 (E-mail) youngkim@korea.ac.kr  
연구원, 강봉주 (E-mail) supem376@naver.com  
(TEL) 010-3120-8116

● 응답 시 유의사항 ●

1. 설문지는 1번 문항부터 순서대로 차례차례 응답해주십시오.
2. 응답을 구별할 수 있도록 V, O, 해당번호 등으로 표기해주십시오.
3. 질문 내용 중 특별한 안내문이 없는 한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4. 특별한 안내문이 없으면 보기 중 한 개만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견을 기입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기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여 사업명			
국가(수원국)		사업기간 (계약기간)	
사업 분야	<input type="checkbox"/> 사업타당성 조사 <input type="checkbox"/> 본 구매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본 구매		
컨소시엄	<input type="checkbox"/>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참여 <input type="checkbox"/> 단독 참여		
회사명		상시 종업원수	
사업자등록번호		수출개시연도	
본사 소재지 (시군 단위)			
기업 유형 (택일)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input type="checkbox"/> 이노비즈 기업 <input type="checkbox"/> 일반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수출유망기업(지정기관: ) (설문조사일 현재)		
본 사업이전 수원국과의 사업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1건 <input type="checkbox"/> 2건 <input type="checkbox"/> 3건 이상		
수원국 거점	<input type="checkbox"/> 연락사무소 <input type="checkbox"/> 현지 법인 <input type="checkbox"/> 없음		
매출액(2013년)	<input type="checkbox"/> 1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100억 <input type="checkbox"/> 100억~500억 <input type="checkbox"/> 500억 이상		
수출액(2013년)	<input type="checkbox"/> 100만 \$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만\$~500만\$ <input type="checkbox"/> 500만 \$~1000만 \$ <input type="checkbox"/> 1000만 \$ 이상		
담당자(설문)		전화번호	
부서 및 직위		E-Mail	

## II. 재무 성과

### <사업 목적>

1.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참여목적이 무엇입니까? ( )
- |                         |                |
|-------------------------|----------------|
| ① 내수한계 극복을 위한 해외시장 신규개척 | ② 혁신정보 학습 및 습득 |
| ③ 수출국 다변화               | ④ 해외 신사업 발굴    |
| ⑤ 글로벌 인지도 제고            | ⑥ 원재료 조달       |
| ⑦ 생산비 절감                | ⑧ 해외 네트워크 구축   |
| ⑨ 경쟁기업 대응               | ⑩ 기타( )        |

2. 귀사의 주력 해외시장은 어디입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미국 ② 서유럽 ③ 중국 ④ 일본 ⑤ 동남아 ⑥ 중동 ⑦ 동유럽 ⑧ 중남미 ⑨ 기타

### <재무 성과>

3. 본 사업을 통해 사업 초기에 기대했던 재무적 성과 목표(매출액, 영업이익)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	-------------	-----------	----------	-------------

(기대했던 것보다 부족하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입해주시오)

4. 본 사업을 통한 재무적 성과(매출액, 영업이익)가 기업경영의 재무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	-------------	-----------	----------	-------------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입해주시오)

5. 본 사업의 도움 혹은 계기로 현재까지 추가적인 해외진출 성과(국제개발은행 사업수주, 수원국 추가 수출 등)가 있었습니까?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	-------------	-----------	----------	-------------

(공개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오)

사업 내용	
관련 사업 성과 (매출액, 영업이익)	예) 12년 대비 13년 매출액 증가율 % 등
성과 유형(택일)	<input type="checkbox"/> 동일국가 동일제품 시장 확대 <input type="checkbox"/> 동일국가 타 제품 시장 확대 <input type="checkbox"/> 동일 제품 타 국가 진출 <input type="checkbox"/> 타 제품 타 국가 진출 <input type="checkbox"/> 기타( )

(추가 사업 수주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시오.)

<지속 가능성>

6.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EDCF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계획입니까? (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	-------------	-----------	----------	-------------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귀사의 애로사항 혹은 제도 개선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III. 프로세스**

**<지원 충분성>**

7. 본 사업의 담당 기관(EDCF), 수원국 정부 및 사업수행기관의 지원이 충분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업 담당 기관(EDCF)	①	②	③	④	⑤
수원국 정부/사업수행기관	①	②	③	④	⑤

(본 사업의 담당 기관/수원국/사업수행기관의 부족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

**<사업 추진 Process 개선>**

8. EDCF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추진하신 사업에 해당하는 질문 분야를 하나만 선택**해서 응답해주시시오.

**(1) 사업타당성(F/S) 조사 사업만 설문** : 아래 네모에 있는 제도 개선(가~다)에 대해 인지도, 효과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

평가 제도	<인지도: 제도시행의 인식 여부>					<효과성: 중소기업에 도움 여부>				
	전혀 모름		보통		잘 알고있음	도움 안됨		보통		매우 도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EDCF가 시행하는 사전타당성 조사(F/S) 사업 입찰평가 시,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함('13.5월~)

(나) 중복 평가내용을 삭제하고, F/S 수행계획, 참여인력, 특수제안사항 등 핵심사항 위주로 단순화하여 제안서 작성 부담을 경감

(다) 사전타당성 조사 입찰평가 시 PM(Project Manager)의 사업수행능력 및 계획을 평가하는, PM 역량 평가(면접) 실시

(F/S 관련 EDCF 제도에 보완할 사항이나 새로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2) 본 구매 컨설팅 사업만 설문 :** 아래 제도 개선(라)에 대해 인지도, 효과성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평가 제도	<인지도: 제도시행의 인식 여부>					<효과성: 중소기업에 도움 여부>				
	전혀 모름		보통		잘 알고있음	도움 안됨		보통		매우 도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라)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라) 입찰 평가기준을 기술평가(QBS) 중심에서 가격·기술평가(QCBS)로 확대하여 시행

(본 구매 컨설팅 관련 EDCF 제도의 보완할 사항이나 새로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3) 본 구매 사업만 설문 :** 아래 네모에 있는 제도 개선(마~바)에 대해 인지도, 효과성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평가 제도	<인지도: 제도시행의 인식 여부>					<효과성: 중소기업에 도움 여부>				
	전혀 모름		보통		잘 알고있음	도움 안됨		보통		매우 도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마)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 차관사업 범위를 확대(3 -> 5백만원)하고, 수원국에 차관이자를 면제하여 중소기업 사업이 확대되도록 유도(13.6월~)
- (바) 건축물과 내부 기자재 등의 분리구매를 확대  
 예) 의료분야의 경우 개별 품목별(초음파진단기, X-Ray 등 중저가 의료장비) 또는 품목군별(수술실, 방사선, 외래 등으로 구분) 분리구매

(본 구매 관련 EDCF 제도의 보완 사항이나 새로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환경 개선>**

9. EDCF는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네모에 있는 제도 개선(가~라)에 대해 인지도, 효과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

평가 제도	<인지도: 제도시행의 인식 여부>					<효과성: 중소기업에 도움 여부>				
	전혀 모름		보통	잘 알고있음		도움 안됨		보통	매우 도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라)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가) 중소기업의 사업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F/S), 본 구매 컨설팅, 본 구매 발주 예정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수원국별 발주 예정사업 목록 등 공개
- (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Track record 및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참여시 중소중견기업 참여 금액에 대해 무이자 등 우대금리 적용(추진 예정)
- (다) 중소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우선지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수원국에 차관 조건(취급수수료 면제, 우대금리)을 우대하여 중소기업 참여 사업을 확대(추진 예정)
- (라) ODA 적격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법인(대한민국 국민이 50% 초과 출자)에 대한 사업소요자금 및 운영자금 EDCF 대출 신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해 지원금리 인하(추진 예정)  
 \* ODA 적격사업 : 상하수도, 지방전력망, 기후변화 대응 등 개도국 개발에 미치는 효과는 크나, 낮은 사업성, 정치적 위험 등으로 상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업

(EDC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으로써의 애로사항이 있었거나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타 기관 협력>

10. 본 중소기업 참여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 )

- ① 수원국과 초기 사업발굴 참여
- ② 입찰 공고
- ③ EDCF 와의 Network
- ④ 타기관 소개 및 협업(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 협동 조합, 해외건설협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 ⑤ 기타( )

11.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EDCF 외 타 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습니까?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도움이 필요했다면 어떤 부분인지, 무엇 때문인지, 실제 타 기관의 도움을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 \* 참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정책은 중소기업청, KOTRA, 무역협회 등에서 수출준비, 해외시장 진출, 해외시장 확대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1) 수출준비: 수출기업화(수출교육,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컨설팅 지원, 타당성 조사, 무역정보제공 등), 수출첫걸음
  - 2) 해외시장 진출 :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민간네트워크, 해외플랜트 진출, 신흥시장 개척지원 등
  - 3) 해외시장 확대 : 산업기술 국제협력,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해외투자 진출 지원, 해외산업협력 지원 등

**IV. 학습과 성장**

<지식/조직자산 성장>

12. 귀사는 해외 진출을 위한 인력, 재무, 기술력, 운영 시스템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3. 본 사업을 통해 귀사의 역량, 시스템, 문화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				
해외진출 관련 전문성 및 업무처리 능력	①	②	③	④	⑤
해외 진출 운영 시스템 (의사결정, 결제, 지원제도)	①	②	③	④	⑤
기업 문화(사업의지, 구성원 참여의식)	①	②	③	④	⑤

**<추가적인 해외 진출 활동>**

14. 본 사업의 영향으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귀사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활동을 추진 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				
해외진출 지원기관(협회/중기청) 및 수원국 정보 등 해외진출 지식 획득	①	②	③	④	⑤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등의 기술 획득	①	②	③	④	⑤
새로운 시장 발굴/진입 및 마케팅 활동 강화 등 시장 지위 개선 활동	①	②	③	④	⑤
글로벌화 기술, 국제개발협력 교육 등 인적 자원 강화 활동	①	②	③	④	⑤
해외진출 목표 상향, 예산 추가 배정 등 해외 진출 의지	①	②	③	④	⑤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15. EDCF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네모에 있는 제도 개선(가~다)에 대해 인지도, 효과성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평가 제도	<인지도: 제도시행의 인식 여부>					<효과성: 중소기업에 도움 여부>				
	전혀 모름		보통		잘 알고있음	도움 안됨		보통		매우 도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조달청 및 해건협 등 6개 협회\*와 공동으로 EDCF/국제조달시장 입찰서 작성 등 실무교육 실시 (반기 1회)

\* 해건협, 엔지니어링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터넷진흥원, 환경산업기술원,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EDCF/재정부 공동으로 EDCF/MDB 입찰방법 등 교육

(나) EDCF '중소기업 도움마당'(13.1월 홈페이지 개설)을 신설하여 수은 EDCF 해외사업 지원제도, 해외사업 정보, 행사 소식 등을 제공

(다) EDCF가 국제개발은행 출신의 전문가를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고용하여 중소기업 요청시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추진 예정)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EDCF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이나 새로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 V. 종합 의견

16.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긴 시간 설문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 참여 사업 평가 설문지

(본 구매 사업 EDCF 담당자 대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이 발주한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차관사업 평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한국기업경영학회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입니다.

본 설문은 EDCF 사업에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소중한 의견 및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의 자료는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누설되거나 유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신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와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책임연구원, 김영준 고려대학교 교수 (E-mail) youngjkim@korea.ac.kr

연구원, 강봉주

(E-mail) supem376@naver.com

(TEL) 010-3120-8116

### ● 응답 시 유의사항 ●

1. 설문지는 1번 문항부터 순서대로 차례차례 응답해주십시오.
2. 응답을 구별할 수 있도록 V, O, 해당번호 등으로 표기해주십시오.
3. 질문 내용 중 특별한 안내문이 없는 한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4. 특별한 안내문이 없으면 보기 중 한 개만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견을 기입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기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 I. 일반 사항

참여 사업명			
국가(수원국)		사업기간 (계약기간)	
사업 분야	<input type="checkbox"/> 사업타당성 조사 <input type="checkbox"/> 본 구매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본 구매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input type="checkbox"/> 컨소시엄 참여 <input type="checkbox"/> 단독 참여		

소속기관명		부서	
담당자명		직위	
전화번호		E-mail	
EDCF 사업 경력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2년 <input type="checkbox"/> 2년~5년 <input type="checkbox"/> 5년~10년 <input type="checkbox"/> 10년 이상		

## II. 프로세스

### <적극성>

1. 본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및 수원국 정부는 사업 수행에 적극적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소기업	①	②	③	④	⑤
수원국 정부	①	②	③	④	⑤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중소기업/수원국 정부의 부족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적어주십시오.)

<사업 추진 Process 개선>

2. EDCF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구매의 Process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래 네모에 있는 제도 개선(가~나)에 대해 효과성, 보완 필요성에 대해 평가 해주십시오.

평가 제도	<효과성: 중소기업에 도움 여부>					<보완 필요성: 제도의 보완 필요 여부>				
	도움 안됨 ①	②	보통 ③	④	매우 도움 ⑤	필요 없음 ①	②	보통 ③	④	매우 필요 ⑤
(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 차관사업 범위를 확대(3 -> 5백만원)하고, 수원국에 차관이자를 면제하여 중소기업 사업이 확대되도록 유도(13.6월~)

(나) 건축물과 내부 기자재 등의 분리구매를 확대  
 예) 의료분야의 경우 개별 품목별(초음파진단기, X-Ray 등 중저가 의료장비) 또는 품목군별(수술실, 방사선, 외래 등으로 구분) 분리구매

(상기 설문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셨다면, 어떤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 지 제안 부탁드립니다. 새로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함께 적어주십시오.)

▶ 보완 사항:

▶ 새로 필요한 사항: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환경 개선>

3. EDCF는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네모에 있는 제도개선(가~마)에 대해 효과성, 보완 필요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요.

평가 제도	<효과성: 중소기업에 도움 여부>					<보완 필요성: 제도의 보완 필요 여부>				
	도움 안됨	보통	매우 도움			필요 없음	보통	매우 필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라)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중소기업의 사업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F/S) 사업, 본 구매 컨설팅, 본 구매 발주 예정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수원국별 발주 예정사업 목록 등 공개

(나) 수원국의 사업구상 및 발주준비 과정에 대한 EDCF의 기술자문\*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함

\* F/S 작성 및 사업발주 단계에서 EDCF가 기술전문가를 고용하여 사업발굴·설계·구매 등의 과정에서 수원국에 자문 실시

(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Track record 및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참여시 중소중견기업 참여 금액에 대해 무이자 등 우대금리 적용(추진 예정)

(라) 중소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우선지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수원국에 차관 조건(취급수수료 면제, 우대금리)을 우대하여 중소기업 참여 사업을 확대(추진 예정)

(마) ODA 적격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법인(대한민국 국민이 50% 초과 출자)에 대한 사업소요자금 및 운영자금 EDCF 대출 신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해 지원금리 인하(추진 예정)

\* ODA 적격사업 : 상하수도, 지방전력망, 기후변화 대응 등 개도국 개발에 미치는 효과는 크나, 낮은 사업성정치적 위험 등으로 상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업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셨다면, 어떤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 지 제안 부탁드립니다. 새로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함께 적어주시요)

▶ 보완 사항:

▶ 새로 필요한 사항:

<타 기관 협력>

4.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EDCF 본 구매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도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인지 기술해주시오.)

\* 참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정책은 중소기업청, KOTRA, 무역협회 등에서 수출준비, 해외시장 진출, 해외시장 확대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1) 수출준비: 수출기업화(수출교육,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컨설팅 지원, 타당성 조사, 무역정보제공 등), 수출첫걸음
- 2) 해외시장 진출 :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민간네트워크, 해외플랜트 진출, 신흥시장 개척지원 등
- 3) 해외시장 확대 : 산업기술 국제협력,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해외투자 진출 지원, 해외산업협력 지원 등

III. 학습과 성장

<지식/조직자산 성장>

5.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식 획득 및 조직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추가적인 개선 활동>

6. 본 사업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중소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 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중소기업 참여 사업 발굴 및 제안	①	②	③	④	⑤
EDCF 담당자 교육 등 인적 역량 제고	①	②	③	④	⑤
사업 목표 상향 등 사업 추진의지 강화	①	②	③	④	⑤

(상기 항목 외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추가적인 활동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7. EDCF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네모에 있는 제도개선(가~다)에 대해 효과성, 보완 필요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오.

평가 제도	<효과성: 중소기업에 도움 여부>					<보완 필요성: 제도의 보완 필요 여부>				
	도움 안됨		보통		매우 도움	필요 없음		보통		매우 필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조달청 및 해건협 등 6개 협회*와 공동으로 EDCF/국제조달시장 입찰서 작성 등 실무교육 실시 (반기 1회) * 해건협, 엔지니어링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터넷진흥원, 환경산업기술원,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EDCF/재정부 공동으로 EDCF/MDB 입찰방법 등 교육
(나)	EDCF '중소기업 도움마당'(13.1월 홈페이지 개설)을 신설하여 수은 EDCF 해외사업 지원제도, 해외사업 정보, 행사 소식 등을 제공
(다)	EDCF가 국제개발은행 출신의 전문가를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고용하여 중소기업 요청시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추진 예정)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EDCF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이나 새로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

**IV. 종합 의견**

8. 본 구매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긴 시간 설문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참여 사업 평가 설문지**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EDCF 담당자 대상)

**I. 일반 사항**

참여 사업명			
국가(수원국)		사업기간 (계약기간)	
사업 분야	<input type="checkbox"/> 사업타당성 조사 <input type="checkbox"/> 본 구매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본 구매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input type="checkbox"/> 컨소시엄 참여 <input type="checkbox"/> 단독 참여		
소속기관명		부서	
담당자명		직위	
전화번호		e-mail	
EDCF 사업 경력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2년 <input type="checkbox"/> 2년~5년 <input type="checkbox"/> 5년~10년 <input type="checkbox"/> 10년 이상		

**II. 프로세스**

**<적극성>**

1. 본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및 수원국 정부는 사업 수행에 적극적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소기업	①	②	③	④	⑤
수원국 정부	①	②	③	④	⑤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중소기업/수원국 정부의 부족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적어주십시오.)

**<사업 추진 Process 개선>**

2. EDCF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조사(F/S)의 Process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래 네모에 있는 제도 개선(가~다)에 대해 효과성, 보완 필요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요.

평가 제도	<효과성: 중소기업에 도움 여부>					<보완 필요성: 제도의 보완 필요 여부>				
	도움 안됨		보통		매우 도움	필요 없음		보통		매우 필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가) EDCF가 시행하는 사업타당성 조사(F/S) 사업 입찰평가 시,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함('13.5월~)
- (나) 중복 평가내용을 삭제하고, F/S 수행계획, 참여인력, 특수제안사항 등 핵심사항 위주로 단순화하여 제안서 작성 부담을 경감
- (다) 사전타당성 조사 입찰평가 시 PM(Project Manager)의 사업수행능력 및 계획을 평가하는, PM 역량 평가(면접) 실시

(상기 설문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셨다면, 어떤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 지 제안 부탁드립니다. 새로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함께 적어주십시오.)

보완 사항:

새로 필요한 사항:

###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환경 개선>

3. EDCF는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네모에 있는 제도개선(가)~(나)에 대해 효과성, 보완 필요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

평가 제도	<효과성: 중소기업에 도움 여부>					<보완 필요성: 제도의 보완 필요 여부>				
	도움 안됨	보통	매우 도움	필요 없음	보통	매우 필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가) 중소기업의 사업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F/S), 본 구매 컨설팅, 본 구매 발주 예정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수원국별 발주 예정사업 목록 등 공개
- (나) 수원국의 사업구상 및 발주준비 과정에 대한 EDCF의 기술자문\*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함  
\* F/S 작성 및 사업발주 단계에서 EDCF가 기술전문가를 고용하여 사업발굴·설계·구매 등의 과정에서 수원국에 자문 실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셨다면, 어떤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 지 제안 부탁드립니다. 새로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함께 적어주십시오.)

보완 사항:

새로 필요한 사항:

**<타 기관 협력>**

4.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EDCF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도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인지 기술해주시시오.)

\* 참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정책은 중소기업청, KOTRA, 무역협회 등에서 수출준비, 해외시장 진출, 해외시장 확대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1) 수출준비: 수출기업화(수출교육,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컨설팅 지원, 타당성 조사, 무역정보제공 등), 수출첫걸음
- 2) 해외시장 진출 :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민간네트워크, 해외플랜트 진출, 신흥시장 개척지원 등
- 3) 해외시장 확대 : 산업기술 국제협력,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해외투자 진출 지원, 해외산업협력 지원 등

**III. 학습과 성장**

**<지식/조직자산 성장>**

5.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식 획득 및 조직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추가적인 개선 활동>**

6. 본 사업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중소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 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중소기업 참여 사업 신규 발굴 및 제안	①	②	③	④

EDCF 담당자 교육 등 인적 역량 제고	①	②	③	④	⑤
사업 목표 상향 등 사업 추진의지 강화	①	②	③	④	⑤

(상기 항목 외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추가적인 활동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7. EDCF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네모에 있는 제도개선 (가~다)에 대해 효과성, 보완 필요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요.

평가 제도	<효과성: 중소기업에 도움 여부>					<보완 필요성: 제도의 보완 필요 여부>				
	도움 안됨		보통		매우 도움	필요 없음		보통		매우 필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조달청 및 해건협 등 6개 협회\*와 공동으로 EDCF/국제조달시장 입찰서 작성 등 실무교육 실시(반기 1회)

\* 해건협, 엔지니어링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터넷진흥원, 환경산업기술원,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EDCF/재정부 공동으로 EDCF/MDB 입찰방법 등 교육

(나) EDCF'중소기업 도움마당(13.1월 홈페이지 개설)을 신설하여 수은 EDCF 해외사업 지원제도, 해외사업 정보, 행사 소식 등을 제공

(다) EDCF가 국제개발은행 출신의 전문가를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고용하여 중소기업 요청시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추진 예정)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EDCF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이나 새로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 IV. 종합 의견

8. EDCF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긴 시간 설문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참여 사업 평가 설문지**  
(본 구매 컨설팅 사업 EDCF 담당자 대상)

**I. 일반 사항**

참여 사업명			
국가(수원국)		사업기간 (계약기간)	
사업 분야	<input type="checkbox"/> 사업타당성 조사 <input type="checkbox"/> 본 구매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본 구매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input type="checkbox"/> 컨소시엄 참여 <input type="checkbox"/> 단독 참여		
소속기관명		부서	
담당자명		직위	
전화번호		e-mail	
EDCF 사업 경력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2년 <input type="checkbox"/> 2년~5년 <input type="checkbox"/> 5년~10년 <input type="checkbox"/> 10년 이상		

**II. 프로세스**

**<적극성>**

1. 본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및 수원국 정부는 사업 수행에 적극적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소기업	①	②	③	④	⑤
수원국 정부	①	②	③	④	⑤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중소기업/수원국 정부의 부족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적어주십시오.)

**<사업 추진 Process 개선>**

2. EDCF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구매 컨설팅의 Process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래 제도 개선(가)에 대해 효과성, 보완 필요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요.

평가 제도	<효과성: 중소기업에 도움 여부>					<보완 필요성: 제도의 보완 필요 여부>				
	도움 안됨	보통		매우 도움		필요 없음	보통		매우 필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입찰 평가기준을 기술평가(QBS) 중심에서 가격·기술평가(QCBS)로 확대하여 시행

(상기 설문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셨다면, 어떤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 지 제안 부탁드립니다. 새로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함께 적어주십시오.)

보완 사항:

새로 필요한 사항:

###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환경 개선>

3. EDCF는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네모에 있는 제도개선(가~라)에 대해 효과성, 보완 필요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요.

평가 제도	<효과성: 중소기업에 도움 여부>					<보완 필요성: 제도의 보완 필요 여부>				
	도움 안됨	보통		매우 도움		필요 없음	보통		매우 필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라)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중소기업의 사업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F/S), 본 구매 컨설팅, 본 구매 발주 예정 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수원국별 발주 예정사업 목록 등 공개

(나) 수원국의 사업구상 및 발주준비 과정에 대한 EDCF의 기술자문\*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함

\* F/S 작성 및 사업발주 단계에서 EDCF가 기술전문가를 고용하여 사업발굴·설계·구매 등의 과정에서 수원국에 자문 실시

(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Track record 및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참여시 중소중견기업 참여 금액에 대해 무이자 등 우대금리 적용(추진 예정)

(라) 중소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우선지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수원국에 차관조건(취급수수료 면제, 우대금리)을 우대하여 중소기업 참여 사업을 확대(추진 예정)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셨다면, 어떤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 지 제안 부탁드립니다. 새로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함께 적어주십시오)

보완 사항:  
 새로 필요한 사항:

<타 기관 협력>

4.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EDCF 본 구매 컨설팅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도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인지 기술해주시시오.)

\* 참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정책은 중소기업청, KOTRA, 무역협회 등에서 수출준비, 해외시장 진출, 해외시장 확대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1) 수출준비: 수출기업화(수출교육,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컨설팅 지원, 타당성 조사, 무역정보제공 등), 수출첫걸음
- 2) 해외시장 진출 :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민간네트워크, 해외플랜트 진출, 신흥시장 개척지원 등
- 3) 해외시장 확대 : 산업기술 국제협력,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해외투자 진출 지원, 해외산업협력 지원 등

III. 학습과 성장

<지식/조직자산 성장>

5.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식 획득 및 조직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추가적인 개선 활동>

6. 본 사업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까?  
 (상기 항목 외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추가적인 활동이 있으면 적어주시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중소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 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중소기업 참여 사업 발굴 및 제안	①	②	③	④
EDCF 담당자 교육 등 인적 역량 제고	①	②	③	④
사업 목표 상향 등 사업 추진의지 강화	①	②	③	④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7. EDCF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네모에 있는 제도개선(가~다)에 대해 효과성, 보완 필요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요.

평가 제도	<효과성: 중소기업에 도움 여부>					<보완 필요성: 제도의 보완 필요 여부>				
	도움 안됨 ①	보통 ②	매우 도움 ③	매우 도움 ④	매우 도움 ⑤	필요 없음 ①	보통 ②	매우 필요 ③	매우 필요 ④	매우 필요 ⑤
(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 조달청 및 해건협 등 6개 협회\*와 공동으로 EDCF/국제조달시장 입찰서 작성 등 실무교육 실시(반기 1회)

\* 해건협, 엔지니어링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터넷진흥원, 환경산업기술원, 의료기기공업 협동조합과 EDCF/재정부 공동으로 EDCF/MDB 입찰방법 등 교육

(나) EDCF '중소기업 도움마당'(13.1월 홈페이지 개설)을 신설하여 수은 EDCF 해외사업 지원제도, 해외사업 정보, 행사 소식 등을 제공

(다) EDCF가 국제개발은행 출신의 전문가를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고용하여 중소기업 요청시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추진 예정)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EDCF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이나 새로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적어주시요.)

**IV. 종합 의견**

8. 본 구매 컨설팅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긴 시간 설문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첨 2> 현지(해외) 조사 설문지

### 심층 면접(Interview) 질문지 (KOICA 현지 사무소 - 한국어 설문)

#### <사업 확대>

1.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위해 수원국의 경제 발전 및 사회 현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오스의 경우 중소기업 참여 사업 확대를 위해 염두해야 할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자동차 수요 상승, 인프라 및 건설 경기 활성화, 낙후된 보건의료 수준, 여성 사회 진출 확대, 통신 네트워크 확대 등)

2. 상기 1번과 같은 트렌드를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이 어디에서 혹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라오스 정부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가장 관심있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교통, IT, 에너지, 수자원 관리, 의료/위생, 교육, 공공행정, 농수임업, 환경, 자동차 등)

#### <프로세스>

4. 라오스와 ODA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관행, 법/제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소비자 특성(품질보다 가격 우선 고려 등), 수입허가 시간 등 통관 절차, 사업 관행(최소 주문수량에 대한 부담 등), 도난, 파손 등 물품 안전 관련, 불안정한 금융시스템, 원가 변동 등)

5. KOICA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원조 관련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 가장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중소기업 사업 발굴, 적정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리발주 확대, 실무교육 확대, 원조 설명회, 입찰정보 공개 확대 등)

\* 참고: 중소기업의 ODA 사업참여 설명회 자료(2013.12월, KOICA/중소기업진흥공단)



### <우수 사례>

6. KOICA에서 중소기업과 진행한 라오스 사업 중 우수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추천 사유, 사업명, 사업내용).
7. 기타 중소기업 사업 확대 및 진출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자료 수집>

8. 아래 관련 한글/영문 자료를 공개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라오스 중소기업 수출 유망 분야
  - 라오스 개발협력 분야의 국내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우수 사례
  - KOICA 중소기업 참여 정책 적용 사례(라오스 혹은 동남아)
  - 중소기업 라오스 진출 시 참고사항

<Interview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 참여 사업 현지조사 설문지

(라오스 재무부 - 라오스어 설문)

한국수출입은행(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개도국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입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말하며, 제조업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2012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7.7%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인공입니다. 중소기업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기술 및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경제 발전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한국경제-중소기업-개도국’ 3자가 모두 Win-Win-Win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참여 사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참여한 라오스와 소방설비 및 의료기자재 공급사업(3건\*)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본 설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중소기업이 참여한 유사사업의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소방설비 및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 ① LAO-6: The Establishment Project of Rescue and Fire-Fighting Services at five Provincial Airports
- ② LAO-7: The Procurement Project of Fire-Fighting Facilities in Vientiane City
- ③ LAO-8 The Procurement Project of Medical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the 109 Hospital

질문지를 읽은 후 모든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08월

한국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연구수행기관 : (사) 한국기업경영학회

연구책임자, 김영준 고려대학교 교수

(E-mail) youngjkim@korea.ac.kr

연구원, 강봉주

(E-mail) supem376@naver.com

(TEL) 82-10-3120-8116

<사업 확대>

1. 귀국 정부에서 가장 관심있는 유상(Credit) 공적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개 복수 선택)

① 교통 인프라	② IT	③ 산업 에너지	④ 수자원 관리	⑤ 의료 보건 위생	⑥ 교육	⑦ 공공 행정 제도	⑧ 농업 수산업 임업	⑨ 환경	⑩ 중장비/ 자동차

□ 기타 ( )

2. EDCF\*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 안전, 교통, 교육 분야의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향후 ODA사업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개 복수 선택)

① 교통 인프라	② IT	③ 산업 에너지	④ 수자원 관리	⑤ 의료 보건 위생	⑥ 교육	⑦ 공공 행정 제도	⑧ 농업 수산업 임업	⑨ 환경	⑩ 중장비/ 자동차

□ 기타 ( )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개도국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

3. 중소기업 참여 사업의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 ① 유망 중소기업 소개
- ② 신규 사업 공동발굴 및 제안
- ③ 초기 컨설팅 등 기술자문 강화
- ④ 합작기업 설립 및 지원
- ⑤ 기술 전수를 통한 산업 발전 지원
- ⑥ 중소기업 참여사업 차관규모 확대
- ⑦ 차관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 ⑧ 기타( )

<프로세스>

4. 본 사업(LAO-6, LAO-7, LAO-8)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소액(5백만불 이하) 차관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절차를 간소화(서류심사 원칙)하는 등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진행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 중소기업 소액차관사업의 진행 절차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제안 부탁드립니다.

5. 중소기업이 참여한 EDCF 사업의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대를 위해 가장 효과성이 높은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A)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기존 3백만불에서 5백만불로 확대하여 수원국 (Recipient country)에는 차관이자를 면제하여 중소기업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B)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컨소시엄 참여 시 중소기업 참여 금액에 대해 수원국에 무이자 등 우대금리 적용(추진 예정)

(C)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수원국에 차관 조건(취급수수료 면제, 우대금리)을 우대하여 중소기업 참여 사업을 확대(추진 예정)

(D) 수원국의 사업구상 및 발주준비 과정에 대한 EDCF의 기술자문\*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함

\* 사업타당성 조사 및 사업발주 단계에서 EDCF가 기술전문가를 고용하여 사업발굴, 설계·구매 등의 과정에서 수원국에 자문 실시

### <효과성/영향력>

6. 라오스에서 추진한 중소기업 참여 사업의 효과성, 영향력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 ① 사업 후 지속적인 정책자문
- ② 동일 분야 유사사업 확대
- ③ 기술 전수 등 수원국 자체 운영능력 향상 지원
- ④ 합작기업 설립 및 지원
- ⑤ 운영비 등 금융지원
- ⑥ 참여 중소기업의 추가사업 발굴 지원
- ⑦ 기타 (                                    )

### <우수 사례>

7. 귀국에서 타국의 중소기업과 진행한 유상 공적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중 우수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사업연도	
사업내용	
추천 사유	

### <자료 수집>

8. 아래 관련 영문자료를 공개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라오스 중소기업 수출 유망분야
- 라오스 국가개발 전략 및 차관사업 정책 자료
- 타국과 진행한 중소기업 참여 사업 우수 사례

<설문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 참여 사업 현지조사 설문지

(라오스 공안부 - 라오스어 설문)

한국수출입은행(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개도국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입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말하며, 제조업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2012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7.7%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인공입니다. 중소기업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기술 및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경제 발전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한국경제-중소기업-개도국’ 3자가 모두 Win-Win-Win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참여 사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참여한 라오스와 소방설비 공급사업(2건\*)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본 설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중소기업이 참여한 유사사업의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소방설비 공급사업

- ① LAO-6: The Establishment Project of Rescue and Fire-Fighting Services at five Provincial Airports
- ② LAO-7: The Procurement Project of Fire-Fighting Facilities in Vientiane City

질문지를 읽은 후 모든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08월

한국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연구수행기관 : (사) 한국기업경영학회

연구책임자, 김영준 고려대학교 교수

(E-mail) youngkim@korea.ac.kr

연구원, 강봉주

(E-mail) supem376@naver.com

(TEL) 82-10-3120-8116

### <사업 확대>

1. 귀 부서 관련 유상(Credit) 공적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분야에서 추가적인 중소기업 참여사업의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 |                      |  |
|----------------------|--|
| ① 유망 중소기업 소개         | ② 신규 사업 공동발굴 및 제안                                  |
| ③ 초기 컨설팅 등 기술자문 강화   | ④ 합작기업 설립 및 지원                                     |
| ⑤ 기술 전수를 통한 산업 발전 지원 | ⑥ 중소기업 참여사업 차관규모 확대                                |
| ⑦ 차관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 ⑧ 기타(    ) |

### <효과성/영향력>

2. 중소기업이 참여한 소방설비 사업(LAO-6, LAO-7)의 효과성, 영향력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   |                       |
|---|-----------------------|
| ① 사업 후 지속적인 정책자문                                    | ② 동일 분야 유사사업 확대       |
| ③ 기술 전수 등 수원국 자체 운영능력 향상 지원                         | ④ 합작기업 설립 및 지원        |
| ⑤ 운영비 등 금융지원  | ⑥ 참여 중소기업의 추가사업 발굴 지원 |
| ⑦ 기타 (    ) |                       |

### <프로세스>

3. 본 사업(LAO-6, LAO-7)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소액(5백만불 이하) 차관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절차를 간소화(서류심사 원칙)하는 등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진행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 본 사업의 진행 절차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제안 부탁드립니다.

4. 소방설비 사업(LAO-6, LAO-7)의 수행과정(사업 계획, 계약, 납품, 구축, 사후 관리)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좀 더 노력해야할 점은 무엇입니까?

<우수 사례>

5. 귀 부서에서 타국의 중소기업과 진행한 유상(Credit) 공적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 중 우수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사업연도	
사업내용	
추천 사유	

<자료 수집>

6. 아래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참여사업 2건의 사업 성과(각 사업별 성과를 알수 있는 통계 자료)

- The Establishment Project of Rescue and Fire-Fighting Services at five Provincial Airports (LAO-6)

조사 항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개 공항 이용 여객수				
5개 공항 소방인력수				
5개 공항 화재 발생건수				
5개 공항 항공기 구조소방차(4대) 출동건수	-			
5개 공항 물탱크소방차(6대) 출동건수	-			

- The Procurement Project of Fire-Fighting Facilities in Vientiane City (LAO-7)

조사 항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엔티안시 화재 발생건수				
비엔티안시 화재 사망자수				
비엔티안시 화재 부상자수				
비엔티안시 화재 피해비용(US \$)				
물탱크소방차(11대) 출동건수	-			
사다리소방차(1대) 출동건수	-			

<설문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 참여 사업 현지조사 설문지

(109병원 사업담당자 - 라오스어 설문)

한국수출입은행(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개도국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입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말하며, 제조업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2012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7.7%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인공입니다. 중소기업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기술 및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경제 발전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한국경제-중소기업-개도국’ 3자가 모두 Win-Win-Win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참여 사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참여한 라오스 의료기자재 공급사업(1건\*)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본 설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중소기업이 참여한 유사사업의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109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 ① LAO-8 The Procurement Project of Medical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the 109 Hospital

질문지를 읽은 후 모든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08월

한국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연구수행기관 : (사) 한국기업경영학회

연구책임자, 김영준 고려대학교 교수

연구원, 강봉주

(E-mail) youngkim@korea.ac.kr

(E-mail) supem376@naver.com

(TEL) 82-10-3120-8116



<별첨 3> 중소기업 유망 수출 품목

유망 품목	국가(EDCF 지원 대상국 위주 분류)
CCTV 카메라	미얀마, 베트남, 도미니카공화국, 나이지리아, DR 콩고 등
기타 자동차 부품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카메룬, DR 콩고 등
감압/유압 밸브 및 부분품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나이지리아, 가나, 카메룬 등
유압브레이커(파쇄용 공구)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자동차 엔진 부품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도미니카 공화국, 콜롬비아, 요르단, 가나, 카메룬 등
타이어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도미니카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카메룬 등
진단기기(임신, 내시경, 수의용)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의료기기(초음파영상진단기)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조명기구와 램프	라오스, 베트남 등
플라스틱제 접착필름 및 테이프	미얀마, 베트남, 파키스탄 등
자동차배터리	미얀마, 도미니카공화국, 가나, 카메룬 등
선박엔진 및 부분품	인도네시아,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등
의료기기(혈압측정기)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필리핀 등
액자/가구 등 생활용품용 플라스틱 제품	미얀마, 필리핀, ER 콩고 등
액체 펌프 및 부분품	미얀마, 필리핀, 콜롬비아, 알제리, DR 콩고 등
미분류 기계류와 부속품	필리핀 등
프레싱/스웸핑/편칭용 공구	미얀마 등
전기통신용 케이블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DR 콩고 등
디지털 도어락 및 부품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DR 콩고